

예수님 이야기

저자:김명호

도서출판 예원당

독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크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써서 독자들을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요즘은 어지러운 세대요 광야에는 요한의 외치는 소리만이 아니요, 분별하기 힘든 너무 많은 소리들이 넘쳐서 소리 공해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들이 다 진리가 아니요, 다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구별하고 이것이 정로니 이리로 가라는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심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게 생각되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로 듣듯이 읽도록 하고 싶어서 글로 옮겨 보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닌 독자들이 이 글을 대할 때 무례하게 느끼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시면 오히려 그런 말법이 더 친근해 질 수도 있으리라고 스스로 변명도 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른 예수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같은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찬미 부르며, 교회에 부지런히 헌신적으로 출석하고 충성했는데 다른 예수를 섬긴 것이 되었다면 이처럼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이 계시한 대로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학문적으로 그리스도론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독자 여러분들에게 내어 놓았을 뿐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과 다르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읽으시고 서로 비교하여 다 같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그날 그 나라에 가서 다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 서로 만나 이런 글을 읽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가린 것 없이 우리 주님을 보며, 혹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잘못 되었던 것들이 있었으면 그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즐거움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출판을 할까 하고 궁리를 하는 중이었는데 뜻 밖에 이태근 목사로 부터 장막회 교재를 출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출판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상으로 출판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출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판을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글을 쓰는 동안 격려하고 용기를 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 딸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듭 감사하며 머리말을 대신합니다.

1990년 5월 10일 미국 나성 밸리에서

차례

독자들에게 드리는 말씀/3

제1장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님/5

- 1)하나님의 아들 예수님/9
- 2)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때/33

제2장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49

- 1)사람이 존재하게 됨/50
- 2)사람이 비존재(非存在) 비생명(非生命)이 됨/60
- 3)죄는 비존재 비생명임/68
- 4)여자의 후손 예수님/80

제3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99

- 1)예언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101
- 2)다윗의 자손이 아닌 예수님/107

제4장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115

- 1)육신이란 말/119
- 2)영의 생명/125
- 3)육체와 죄문제/129
- 4)예수님의 육체/134

제5장 천국의 실상이신 예수님/149

- 1)천국이란 말/150
- 2)천국이 이루어짐/153
- 3)인격천국(人格天國)/155
- 4)천국이신 예수님/159
- 5)영원한 천국/165

제6장 죄자체가 되신 예수님/175

- 1)세상죄를 지신 예수님/175
- 2)죄가 되신 예수님/182
- 3)자기 죄로 죽는 사람들/190

제7장 의가 되신 예수님/213

- 1)율법의 마침이 되심/214
- 2)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222

끝맺는 말/250

제1장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겠으나, 그때는 너희들의 이해력이 어

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동화적인 차원에서 들려주었지. 이제는 꽤나 장성하였으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더 높은 차원에서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너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의 값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갚으신 예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왜 너희들 뿐이랴. 누구든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사람들이

p.6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너희 아버지가 목서로서 수 십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설교하고 가르쳤어도 깨닫는 귀를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기이한 생각이 들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막 4:9)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은 좀 나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가르치고 설명하는 방법이 모자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듣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어떻게 도와줄줄 알게 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사 50:4,5)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여 듣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경험이 너희들의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요 17:3)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성경이 계시해 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다른예수”(고후 11:4)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것은 큰 속임수에 걸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반복해서 하게 될 내용이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 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가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교

p.7 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이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인지! 그러나 너희들은, 별난 목사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들뜬 기분으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맞이한 일이 없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너희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도 든다만 그 12월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사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날이라는 것을 아는 아버지로서는 세상이 다 들뜬 그런 기분을 너희들에게 끼칠 마음이 없어서 너희들의 어린마음을 잘 돌보지 못하였구나. 지금은 너희들이 그런 아빠의 심정을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고 고맙게 여긴다.

그 날이야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역사적 실마리임에는 틀림없는 일이 아니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마 1:18)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이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定婚)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가로되 은혜를 받은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p.8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26-31)

생각해 보라. 숫처녀 마리아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니. 아직 시집도 가지 아니하였는데 아기를 배다니!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가!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전 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유대나라에서는 시집가지 아니한 여자가 아기를 배면 돌에 맞아 죽을 죄로 여길 때이니 얼마나 놀랄 일이었겠니. 그래서 마리아는 단호히 자기의 정결성을 말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일이 있으리이까?”(눅 1:34)

천사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당연히 그렇게 말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니? 그는 자신이 결코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호히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천사는 미리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설명했었지!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1-33). 이 말은 마리아가 어떤 대답도 하기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어날 사정의 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마리아로서는 그 말을 단순히 소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 그래서 자기의 순결성을 분명히 말해야만 하였었다. 천사는 다시한번 더 진상을 짧게 말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마리아가 이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

p.9 나 어쨌든 마리아는 다른 군소리 하지 않고 천사의 이 기별을 수용하였다. 그래서 예? 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된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지. 그러나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의 진상을 알아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며,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며,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 잉태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참으로 아는 것이다.

### 1)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요 10:36).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다. 그런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신약 성경

을 읽으면 사복음서(四福音書-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마 3:17)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처럼 친히 선포하신 일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용모를 변형하셨을 때도 있었다.(마17:5)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도 예수님

p.10 을 만나 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고(요 1:49),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 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7-18)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복된 일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니? 너희들도 역시 그렇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아들이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장했으니까, 또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니? 이런 자세는 물론 좋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일일이 의심을 하고 이유를 따지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무조건 믿는 태도는 좋은 태도이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 해 주신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태도가 아니겠니? 구약 성경 신명기 29:29에는 “오묘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와 함께 성경에 나타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알아보는 일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p.11 성경을 살펴보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때에는 그 이상의 어떤 비밀이 있는가?

### (1) 예수님의 원래 위치

사실에 있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란다. 물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란다. 그것은 너희들이 장성하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준 만큼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려면 예수님의 원래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이사야 9:6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

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셨다. 여기 있는 어려운 말들을 일일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 아기”**로 우리에게 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특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성경 **“아기”**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p.12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래 위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겠니?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단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 이 아버지와 함께 찾아보자. 비밀을 찾아 아는 일은 스틸 있는 일이 아니냐.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구별해요?”

그렇다. 이런 질문은 반드시 나와야 하는 질문이다. 너희들이 들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 뿐이었지.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複數)로는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수로 쓴 것은 신약성경만이란다. 우리가 찾아본 이사야 9:6은 **“영존하신 아버지”**로 계시는 그분이 **“아들”**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요, 그분이 **“아들”**로 탄생하시기 전에는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지.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도 당장 알 수 있도록 뚜렷이 나타나 있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다.

p.13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신약성경의 계시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 의하여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의해서만 구약성경에 다만 **“하나님”** 혹은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 중에 누가 신약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분이며 또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단다.

그러니 예수님의 원래 위치에 대하여 바르게 알 때에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분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 곧 여호와 엘로힘”( )**이셨단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인 **“엘로힘”**은 복수(複數)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말 중에 2310번은 엘로힘을 번역한 말이다. 물론 이 중에는 **“신(神)”**이라고 번역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구약성경에는 엘로힘이란 말이 2555번 쓰였는데 그 중에 245번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는데 사용되었다. 헬로힘이란 말은 **“힘센자”** **“능력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세고 능력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에 대하여서도 사용되었단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신이나, 천사 또는 재판장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지.

어쨌거나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임에는 틀림없다. 구

약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수로 계시되, 한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강조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신약성경에 와서 그 복수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분명히 밝

p.14 혀 주었다. 그래도 그 이름은 다같이 여호와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지. 이것을 신학자들은 삼위일체(三位一體)라고 말하되, 삼위일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男便)”**이라고 말씀한 곳도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의 상식으로 한 개체가 동일한 대상에게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각각 다른 개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 나타나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남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 각각 다른 개체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니? 우리가 그것을 신약성경을 연구 할 때에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남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 보자.

먼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자.

신명기 32:6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시편 89:26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시요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p.15 이사야 63: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 64:8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예레미야 3:1-4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제부터는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예레미야 3:19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하고 나를 떠나지 말것이라 하였노라.

말라기 2: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상의 말씀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자.

이사야 54:5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사야 62:4,5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레미야 3:1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

이니라.

p.16 예레미야 3:20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너희가 정녕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3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호세아 2: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2:19,20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상의 말씀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분명하지. 더욱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똑같이 일곱 번씩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 각각 다른 개체로 계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생기지? 그렇지 분명히 그 질문을 해야 한다. 너희들이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아니하면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들려 줄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지. 사실은 성경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거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약성경에서 찾

p.17 아야 한다. 성경은 또 이 대답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결코 한번도 예수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롬 15:6, 엡 1:3, 벧전 1:3)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계시 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번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

마태복음 6: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20:17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데 열심이셨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뜻을 설명할 때 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한다. 어쨌든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은 신약성경에서 누구시겠나? 분명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남편으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자, 성경을 찾아보자.

고린도후서 11:2 내가 너희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p.18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에베소서 5:22-32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계시록 19:7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곧 하나님의 참 백성의 남편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이사야 9:6에 말씀한 우리에게 아들 아기로 주신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 없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단다.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곧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며, 구약성경에서 이스라

p.19 엘의 남편으로 계시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다.

디도서 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요한일서 5: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하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아무런 모순이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원어를 따지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일 처음 피조물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에수를 맨 처음으로 창조하여, 그로 하여금 천지와 만물을 만들게 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성경의 예수님이신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란다. 정직하게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아무도 오해 할 수 없도록 성경은 예수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단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앉아서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그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맨 처음에 창조한 다음 그 창조한 아들에게 천지와 만물을 만들게 했다면, 요한복음 1:3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

p.20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이다. 지은 만물 중에는 하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은 없다는 말

씀이 아니냐. 만약 예수님이 첫 피조물이라면 그것도 예수님이 만들었어야 옳지 않나. 왜냐하면 지은 것 중에는 하나도 예수님이 짓지 않은 것은 없으니까 말이다. 이뿐 아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4:24에는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찢으며 땅을 베풀었고”라고 말씀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그분과 함께한 아무 다른 존재도 없이 홀로 창조하셨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한 다음에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틀린 말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사야 44:24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남편 하나님을 함께 한 하나님으로 일컫는 말씀인 줄 깨닫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원래 위치는 이와같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포함하는 칭호이다. 그가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의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p.21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류를 구속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위를 취할 것을 자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분은 이스라엘의 남편 여호와로 나타나셨다. 이스라엘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거든, 창세기 32:24-30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에서 이 뜻이 잘 나타나있지.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니냐. 이 말은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이란다. 이런 뜻이 야곱의 말 중에 나타났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36)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하게 하는 축복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지. 즉 하나님 없이는 생명도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주신 그 상태로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이 간청하여 그런 상태로 구원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창32:30)고 외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없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란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 구원된 사람들의 남편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내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

p.22 리고 이렇게 된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자녀)의 신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얻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의 사상으로는 며느리가 되겠지만, 성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 얻은 백성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은 그 구원이 어떤 모양으로도 확실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위를 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 곧 교회의 남편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

버지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계시된 것이지. 지금까지 이  
이야기 한 신약성경의 계시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을 일  
으킬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니?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이와 같이 대조하여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또 하나  
의 개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구약에서는 꼭 한 개체로서  
의 여호와 하나님 뿐인 것 같이 인상을 받도록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아까 이미 나온 질문이구나. 왜 그랬을까?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말씀이 뚜렷  
하게 나타나 있는 것같지 않구나.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말을 여러번 사용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한 개체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  
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같고(창 1:26, 창 11:7, 사 6:8), 이미  
이야기 한 것처럼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이 복수로서 하나님이 복수 존재라는  
것으로 나타내셨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깨달을 만큼 준비 되지 않았기

p.23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당시 세계는 완전히 다신론이 지배하고 있었  
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 개체로 뚜렷이 계시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도  
다신적 존재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진행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세 개체로 계시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을 때인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뚜렷이 밝힌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원래 위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남  
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만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 왜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 오셨는가 말이다.

## (2) 아들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하느냐?”

이런 경우 항상 잘 나서는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였다. 그 대답은 너희들도 잘 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 이 대답을 듣고 반응하신 예수님의 대  
답을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p.24 얼마나 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  
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3-19)

봐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을 복이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신 비밀이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마 11:25-27)고 말씀하셨단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계시의 차원이란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참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은 계시의 차원이라는 말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공부하면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p.25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지? 그래, 그 복이 무엇이니? 사람들은 흔히 “예수를 믿고 복 받으시다”라고말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이 무엇이겠니?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잘 모르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잠깐 찾아보자.

시편 133:3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영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것처럼 기뻐하시고“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베드로에게 선언된 이 복은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의 복이란다. 이런 사실을 사도요한은, 요한일서 5:11,12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지 짐작이 가느냐? 그것은 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란다. 그래서 성경은“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p.26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고 말씀하신단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몇가지 문제를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처녀에게 나셔야만 하는가? 등등, 거기 나온 질문들을 다 살펴 볼 때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복인지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니? (창 1:26,27)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단다. 성경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말한 곳이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겠지. 물론 성경에 직접 그렇게 한 말은 없다. 그러나 직접 그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말씀은 있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 예수님에게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으로 쓰지 않았느냐. 즉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맛닷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이런 식으로 기록하여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눅 3:23-38).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상은”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는”이라는 뜻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그 아버지는 맛닷이요 …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즉 “에

p.27 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와같이 성경은 아담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양자로 가버렸단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아담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셨단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한일서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한복음 8:44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속한자가 되었다는 뜻이며, 그것은 곧 마귀의 아들로 양자 족다는 뜻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로마서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이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범죄한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지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순종치 않는 행동을 하였고, 그것이 곧 죄라고 로마서에는 말했지. 그러니까 아담은 마귀

p.28 에게 속한 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다. 그 후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함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 해 주마.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모르고, 또한 그렇다고 자신들이 마귀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죄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죄의 결국인 죽음으로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찾아서 다시 자기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열망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친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 곧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位) **곧 아들의 자리를 스스로 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마귀를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과, 그런 의미의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되어 오신 것이란다.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은규 네가 “나는 김명호 목사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김명호 목사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의 아들”

p.29 이라는 말은 “누구”를 아버지로 시인한다는 고백이 아니겠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게 되는 것이지.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적으로 말씀하셨단다.

요한복음 8:19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4:7,9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누구의 아들을 안다 하는 것은 그 누구 곧 아버지도 안다는 뜻이 되지 않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요, 또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타나셨던 또 한 개체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빌 2:6) 하나님의 아들의 위를 취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다. 얼마나 큰 희생이며, 얼마나 큰 사랑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참람하다고 하였고(요 5:18, 10:32,33), 어떤 사

p.30 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막 3:21) 그러나 아마 이런 상상도 해 볼 수 있

지 않겠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당신이나, 나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나 나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꼭 같은데요. 그런데 어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양자로 가서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양자로 가서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상상도 못하며 죽음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통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렇게 당신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옳습니다. 당신이,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시인하면 당신도 나와 꼭 같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와 당신이 이렇게 꼭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같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니까 당신의 아버지이심도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을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전적으로 우리

p.31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 혹은 고백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일서 2: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基業)**”이라고 했단다.

히브리 1:4,5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난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기의 “저”가 예수님인 것은 1절부터 읽으면 분명하고, 내용을 보면 기업으로 얻으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인 것을 알기에 어려움이 없지. 그런데 기업이란 무엇인가?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일기(企) 기업(企業)이 아니고 터기(基)자 기업(基業)이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말과 같다. 즉 터가 되는 산업이라는 뜻이지.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이 아버지에게서 상당한 재산을 산업으로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니? 가만히 놀면서 야금야금 다 써버리겠니? 사업을 더 확장하고 재산을 더 불어나게 하겠니? 그거야 당연히 후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기업으로 받은 것을 밀친으로 하여 더 많은 재산으로 증식시킨다는 말이다. 기업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뜻이 포함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p.32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불어 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들 되심으로 영원한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영원한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다 (롬 8:17) 자, 이만하면 너희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으니 영생과 천국은 전혀 상관 없는 것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지. 이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했을 때 기뻐하셨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냥 성경을 줄줄 읽기만 해서는 이런 이치를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이러한 엄청난 복음 진리가 담겨 있단다. 이제 너희 아빠의 긴 설명을 통하여 너희도 계시를 받은 자들이 되었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진정으로 믿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천국의 당당한 후사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뜻이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한 이유이며, 그렇게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다.

p.33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위를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가? 또한 잉태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이런 의문도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해 보자.

## 2)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때

그날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하기를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알았지.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4에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처럼 말한 것같지 않니? 그렇다면 이사야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과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제 성경의 설명을 들어보자.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어 30세쯤 되었을 때 (눅 3:21-23)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너희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

p.34 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눅 3:21,22)고 하셨지.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또 한번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침례가 무슨 관계가 있는것같지 않느냐? 물론 관계가 있다. 그러면 먼저,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으며, 또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 (1) 예수님의 침례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들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라고 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아오셨을 때에,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 3:14)라고 하여 예수님께 침례 베푸는 일을 사양하지 않았니.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 3:15)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의(義)를 이루는 일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의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선이냐, 윤리적 정치적 의냐? 글썄, 그런 것도 포함되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이루어야 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p.35 의(義)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란다.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의를 이루는 것이냐? 이것은 로마서에 설명하는 침례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단다.

로마서 6:3-5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침례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죽을 것이며, 장사될 것이며, 부활 할 것을 우주 앞에 선언하는 예식이다. 다시 말하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경험을 하실 것인지를 공개하신 예식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생애를 요약해 보여주는 예식이다. 왜 예수님이 이런 생애를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p.36 위함이요, 그가 부활하는 것은 의 곧 여우언한 생명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로마서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확적○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도 죽고 없어지면, 실제적으로는 더 이상 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아들 노릇을 하는 존재가 실제로는 없다는 말이다.

## (2) 예수님의 부활과 아들되심

만일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죽은 것은 없어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을 가리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낳아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없어졌는데 부활하심으로 있게 된 사실을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확실한 증거이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다. 다음 성경을 찾아보자.

사도행전 13:30-35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p.37 이제 백성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서야. 이런 사실을 로마서는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단다.

로마서 1:3,4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인정되셨다”는 말은 “결정한다. 지정한다. 선언한다”는 등의 뜻이 있는 낱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고, 인정되고, 선언되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되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냐.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침

p.38 레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으로 선포하셨다는 말이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침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문제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직접적

으로 침례가 성경에 나타난 것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처음이 아니냐.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단다.

요한복음 1: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께서도 침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마 21:25)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을 때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신 것이 아니겠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침례가 포함되었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니.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될 것에 대한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에 두고 있단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p,39 믿는 다고 할지라도 그 믿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아들들로 있는 것이며, 구원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단다.

고린도전서 15:13-18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았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아들되심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

p.40 사도행전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믿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 할 것이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자기 자신에게 확증하는 예식이 우리가 받는 침례란다.

마가복음 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지, 이런 모든 사실을 함축하여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렇지라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침례 때에 선언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단언한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사실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생활하신다는 사실도 말씀하셨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

p.41 이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요 14:9,10)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애쓰셨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부활에 참여했을 때 확정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부탁하신 첫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는 말씀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신 사실과 함께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되심과 꼭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말씀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자녀**”라고 부르셨단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임이니라”(눅 20:35,36)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다.

### (3)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됨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셔도 될 텐데 왜 그리 급하게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는가라는 질

p.42 문이 생기지.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실 것이니까 미리 예언으로 선포하신 것이기도 하겠

지만 그보다는 너희와 나를 위하여, 아니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니, 이런 사람은 마가복음 16:16의 말씀대로 침례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침례를 받고 올라 올 때 우리도,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 오셨을 때에 들은 것과 똑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을 들으며, 그때 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란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일에는 큰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는 길이 없게 되지 않겠니? 다시 말하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무덤 속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키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하셨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도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신 것이며, 또한 예수님 자신도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들

p.43 으신 사실에 기초하여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단다. 물론 그 분은 탄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는 예고를 받으셨고, 또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실에 의하여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구원의 사실과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침례의 사실에 의하여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해가 아니겠니,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선언하신 것도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신 것이 아니겠니, 그러므로 너희나 이 아버지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사람들이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요한일서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딸이라는 말은 하지 않느냐고 생각되겠지만 아들이라는 말은 성(性)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기 보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로 쓴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담대히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참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친 자녀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격한 사실이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

p.44 들로 세상에 탄생하신 사실에 의하여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 (4)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질문은 할만한 질문이구나. 사실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사야 9:6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지적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하여 다른 대답이 필요 없을 것 같지 않나. 또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도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 그런데도 이 질문이 할만한 질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근본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되지 않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본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가지고 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원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청할 만한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p.45 남편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에 분명히 계시된 사실에 의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이심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이 자기를 비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미 얘기 하였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 의미(救贖史的 意味)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일은 창세 전에 세워진 경륜(經綸)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이 된 것은 그가 사람이 되어 지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정된 것이다.

창세 전에 구원의 경륜이 세워졌다는 말을 들으면 예정론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언젠가 이야기 할 시간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세 전에 세워진 구속의 경륜에 대한 말씀은 찾아봐야지.

로마서 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에베소서 1:3,4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p.46 데모데후서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

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도서 1:1,2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말씀들은 사람을 구원하실 경륜은 영원한 때 전부터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무엇인지 오해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 피조된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 우리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사람이 되어 오시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나님을 버리고 없어진 아들을 찾는다는 일은 창조주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p.47 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며, 이일, 곧 구속의 일을 이루시려 할 때는 그는 언제든지 아들의 신분을 취하시도록 자기 자신 속에 경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한 아들이라고 부르려면 구속사적 의미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말씀 중에 이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5) 이 영화는 구속 사업을 이루는 일이란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4)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냐, 구속 사업을 이루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것은 창세 전부터 삼위 일체 신성 안에 감취어 있다가 자기 때에 나타내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말하면 구속사적 의미로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이 복잡하지? 복잡하게 설명해서 참 미안하구나.

어쨌든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하나님 사이에 영세 전에 약속된 일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이 “영원하신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때까지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같은 대답을 하자.

p.48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이다. 또한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대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선언하실 것이

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의 다른 부분을 말해야 하겠구나.

p.49

## 제2장

###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탄생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했었지.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한 사실을 읽어 보았다.

####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도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단다. 이런 이야기는 예로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에 대하여, 그를 높이려고 만든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의 교훈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하니까 탄생 설화 같은 데 신경 쓸 것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p.50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성경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기초를 놓게 된다. 왜 그러냐고? 이유는 뻔하지 않나. 그런 사고방식은 결국 성경의 기록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오류가 없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뿌리까지 흔드는 사고 방식이니까 그렇지. 다시 말해서, 처녀에게 탄생하셨다는 기록은 믿을 수 없는 엉터리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기록들은 전부 그와 같이 처리하려 할 것이며, 결국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신분과, 인격과, 그의 교훈을 거짓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처녀에게 탄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속사업(救贖事業)의 필연성을 모르기 때문이란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 곧 인류의 구주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누누이 밝혀 주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도 알만큼 계시해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성경의 주장과 설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런 기록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겨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잔소리 그만하고 예수님이 왜 처녀에게 탄생하셔야만 하는지, 그 사실을 성경에서 들어보지.

#### 1) 사람이 존재하게 됨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성경 말씀을 믿는

p.51 너희와 나는 대답이 간단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

을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성경 말씀 대로 믿는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지 않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람이 존재하게 된 사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에 대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 보자. 이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는데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 조심해서 잘 들어 보아라. 먼저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자.

창세기 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다 들어 본 말씀일 것이다. 이 말씀의 주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 사람이 비로소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결코 저절로 생겼거나, 진화를 통하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이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가버린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처하여 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

p.52 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모상은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 49:20). 이것은 진화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냐!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은 창조하신 방법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았지? 창조의 방법을 아는 일은 존재의 법칙을 아는 것이 된단다. **존재의 법칙**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알고 그 법칙 안에 있는 자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창조의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다.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生氣)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 곧 살게하는 기운-기운은 힘이라는 말과 같다-을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흙으로 빚어진 사람 모양이 살아 활동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 (1) 존재와 생명과 선악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한 사람에게 한가지 부탁을 하셨다. 그것은 생명과 선악과의 부탁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로운 존재인 사람을 거하게 하시려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도 있”(창 2:9)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p.53 로 하나님은 이 두나무에 대하여 특별한 말씀을 하셨지.

창세기 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생명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지. 아무튼 사람은 생명과를 포함하여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즉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오늘날까지 사람에게 남아있는 수수께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까 말한대로 사람의 존재 문제와 관계된 명령임에는 틀림 없다.

어떻게 존재 문제와 관계가 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존재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 문제이다.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있게 되었는데,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창조된 사람이 창조 되고 싶다고 소원을 말하여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있지도 않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선택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는 소원에 의해, 즉 자기가 존재하고 싶다는 자기 의지에 의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p.54 자의(自意)에 의하여 존재한 것이 하나도 없고 타의(他意)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 틀림없지? 쉬운 예를 든다면, 너희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 너희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은근나, 누나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 주세요 나는 존재하고 싶단 말이에요”라고 소원을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존재하도록 선택한 것은 누구냐?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의 존재 환경은 곧 아버지의 환경이었지. 너희들이 태어나자 아버지가 사는 집이 곧 너희들의 집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존재나, 너희들의 존재 환경이나 모두 아버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물론 장성하여 너희들 스스로가 집이나 기타 환경을 너희들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너희들의 존재 자체는 , 그 존재하게 된 방법은 바꿀 수가 없는것이다.

그와같이 아담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겔 28:13)이 그의 거처 곧 그의 집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하며, 그 선택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었다. 만일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 f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여 존재하게 한 것을 거절하는 선택밖에 없지 않겠지? 혹은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선택안에 계속 있기로 선택하든지 말이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실을 자기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일일 뿐이다만,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실을 자기 의지로 받아들이는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지. “아담아, 나 여

p.55 호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존재하게 하였다. 너는 내가 존재하게 한 그대로 있는 것이 이미 존재하게 된 너에게 가장 좋은 상태이다.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너에게는 정서

가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조건 안에 있는 것들이다. 만일 내가 존재를 잃게 되면 이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된단다. 그런데 아담아, 나 여호와와 있게한 너의 존재를 내가 감사함으로 계속 있게 하는 것은 생명과를 먹는 일로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나무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자(存在者)라는 특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나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사실을 네 스스로 원치 않는다면 네 자유로운 의지로 내가 너를 존재하게 한 선택을 거절할 수 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선(善)이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공경하며 나의 모든 말을 순종하여 내가 있게한 그대로 있는 존재이고, 악(惡)이란 내가 있게한 그대로 있기를 거절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있게한 그대로 있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나의 창조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니. 다시 말하면 창조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이 선악과는 너의 존재를 한계를 지시하는 표란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둔것은 너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고 네 자신이 네 존재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여 네 존재의 기쁨이 충만케하려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네 존재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네 자신에게 대하여 네 자신

p.56 이 만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의미를 충분히 알겠지”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 담겨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안 아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감사함으로 머물겠다고 대답했을 것이며,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선악과를 두고 언약이 성립된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존재의 언약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대로 있기로 스스로 선택함으로 그의 존재는 자기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대로 확립되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통치자와 주관자로서의 일을 하게 된 것이란다. 무슨 말이고 하니 모든 생물들에 대하여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하셨잖니(창 2:19)? 그것은 모든 생물들이 아담을 위하여 존재하며, 아담의 존재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의 존재가 확립되며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름이란 존재 의미의 확인이기 때문이지, 사람이 없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누가 그것들에게 의미를 주겠니? 그래서 그것들의 이름을 아담 곧 사람에게 짓게 한 것이란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단다. (창 5:1-3)

그리고 이제는 아담이 자기와 같은 존재, 곧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 주신 그같은 생명을 나누어 줄 다른 존재를 생산할 준비가 다 된 것이지.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 (창 2:21,22)

**p.57 (2)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창조해 두심**

왜 하나님은 또 흙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지 않으시고 아담의 허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의 원리

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온 인류를 하나씩 하나씩 각각의 개체로 창조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살리는 힘 곧 생기를 주어서 아담이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책임을 주시기 위하여서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주신 생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행 17:26)라고 선언한다. 나나 너희들이나 모두 아담의 혈통이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란 아담에게서 이어받는 생명 외에는 다른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허리에 있는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 여자의 생명을 아담에게서 취하여 내신 것을 뜻하는 창조 행위라는 말이다. 물론 참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셨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아담에게서 생명을 여자에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은 아담 곧 남자와 여자들에게서 이원적(二元的)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에게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인류의 생명은 완전히 일원

p.58 적(一元的)이다.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에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일원성(一元性)은 모든 인류를 아담 한 사람 안에 존재하게 한다. 아담이 없었다면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남자가 낳았다고 말한다. 성경을 보자.

고린도전서 11: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봐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하였지. 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담에게서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것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성경의 이유이다. 그래서 성경은 후손들을 그 조상의 허리에 있다고 표현한다.

히브리서 7: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  
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7: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창세기 35:11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  
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처음 창조된 아담의 허리에 모두 있었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생명을 아담에게서 나누어 내어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앞에 놓고

p.59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1:28). 사실 이 말씀 속에 모든 아담의 후손이 창조된 것이 아니냐, 곧 생육의 법칙이 창조되었고 그 법칙에 의하여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 속에서 창조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여 아담과 그의

후손 곧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한 존재의 언약을 어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선택하신 그 선택을 거절함으로 인류의 모든 존재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잃어버리게 된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구나.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 문제를 말하지 않고 지나갔구나 그럼 잠깐 그 이야기를 해야지.

씨앗이 발아하여 형체를 이루려면 발이 필요하지. 그 발에서 씨앗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지 않니. 그와 같이 아담에게 준 생명의 씨앗이 여자의 태를 발으로 하여 형태를 이루며 자라게 하셨지. 흙으로 형태를 만들었으나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하지 않니. 것처럼 여자는 생명 자체를 유전시키는데 권리가 전혀 없다. 다만 생명의 씨를 받아서 형체를 이루어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동양의 옛 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옳은 말이다. 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발 자체가 씨앗의 성질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니. 발이 박토이면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시원찮지만 역시 그 씨앗의 열매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에 사람이 비존재가 된 사실을 설명하면 이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p.60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여자의 몸도 흙으로 만들고 아담의 생명을 나누어 넣었겠다. 그렇지요 아버지?”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냥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사실 그 갈빗대도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네 이야기가 일리가 있구나.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 2) 사람이 비존재(非存在) 비생명(非生命)이 됨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공부하였다. 그리고 왜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는지 공부하였다. 그것은 생명의 일원성을 창조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알았다. 그런데 정말 그 아담이 없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다. 너희들도 잘 아는 이야기, 뱀이 여자를 꺾어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 말이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안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질문은 참 교묘한데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질문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으로 그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질문이다. 뱀은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

p.61 보이지만, 사실은 선악과 자체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었던단다. 자세히 읽어 보아라. 뱀이 한 말 가운데 선악과에 대한 직접적인 말이란 마디라도 있니?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지. 그것은 뱀이 최초로 시도한 꺾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여자는 순진하게 대답하였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 하노라 하셨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결국 여자는 그 선악과를 따 먹었다.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다.

뱀은 선악을 알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한 곳은 없다. 다만 창세기 3:22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느니라”라는 말씀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즉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니잖니. 어떻게 도덕적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겠느냐. 뱀이 노린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대로 존재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다. 앞에 설명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선택한 그 선택을 거절하게 한다는 뜻이

p.62 지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 없이 자기들 스스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위가 된다. 뱀은 말하기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지?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과 선악을 안다는 것은 같은 사실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니.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그 과실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뱀의 말이 거짓말이나, 참말이나 라는 문제로 이론이 분분하단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말을 한 그 자리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하지 않겠니. 여기서 먼저 뱀의 정체부터 밝혀 놓고 계속 이야기해야 하겠구나.

### (1) 뱀의 정체

도대체 뱀이 무엇인데 사람을 유혹하겠니? 그 미물이 말이다. 지구에서는 사람이 최고 최상의 존재로 창조되었고, 뱀이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냐?(창 2:19참고). 뱀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도 없는 그런 미물이란 말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람의 심리를 자극 하는 화법으로 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된다. 뱀이 실제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 아빠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실제로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뱀으로 말하게 한 것은 뱀 자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뱀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긴 마귀 곧 사단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뱀은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지. 사람들이 이 일에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은 그 뱀을 무엇이 이용하였는지 분명히 밝혀 놓았지.

요한계시록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p.63 그래서 뱀은 사단의 별명이 되었다. 이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다(요 8:44).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참 기묘하단다. “사단”이라는 말의 뜻을 알

지? 그것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다. “마귀”라는 말은 쫓겨난 자라는 뜻이지.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거던. 그 말이 무슨 뜻이겠니? 마귀가 하는 말은 결코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겠니?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4)고 하셨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가 진짜겠니, 가짜겠니? 바울은 “악한 자의 입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살후 2:9)라고 말하여 사단에게서 오는 기적이 거짓 기적이라고 하였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 가짜야? 진짜야? “가짜 진짜지요 뭐” 허허허 참 멋진 대답이구나. 그래, 가짜 진짜이다. 설명하자면, 사단이 하는 이적도 현상적으로는 진짜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어떤 병을 고쳤으면 그것은 진짜로 고친 것이다. 고치지 않았는데 고친 것같이 보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고쳤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병 고친 이적은 진짜이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라도 미혹 될 수 있지. 그것이 생판 가짜라면 누가 미혹당하겠니. 그러면 왜 거짓 기적이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그 기적의 근원이 거짓이라는 말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서 나온 기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최초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이름조차도 대적자 곧 사단이 된 존재로부터 나온 것은 그것이 아무리 현상적으로는 진짜라도 거짓이라고 성

p.64 경은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거짓을 이해해야 한단다. 이 야기가 잠시 옆 길로 빠진 것 같구나.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사단의 말이니까 거짓말인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단이 말한 대로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 밝아진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밝아짐이었을 뿐이다. 그런 밝아짐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 없이도 존재자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한 그런 밝아짐이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잖니. 그런데 아담은, 자기 존재는 하나님과 상관 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주장은 자신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즉 자신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라고 판단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이것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창 3:22)라고 하신 것이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 안에서 존재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인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들이 생명과를 먹는 것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의 증거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율(自律)하는 존재로 독립했으니까 생명과 없이도 영생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신 것이다. 뿐

p.65 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니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존재와 생명을 받은 자라야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온전히 거절하고 사단에게로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곧 아버지의 집에서 나갈 수 밖에 없지.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내어 보내셨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결과는 분명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한 사람은 없어진 것이다.**

만이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 먹는다고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소용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고 그것이야말로 다시 존재하게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와같이 비존재가 된 사실을,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분명히 보여 주신다.

그것을 더 분명히 이야기 해보자. 창세기 3:7-10에 있는 내용이다.

## (2) 비존재 비생명이 됨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숨는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와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존재와 관련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지 않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결국 이 말씀은 “아담아, 너는 내가 있도록 한 그 자리에 있느냐?”는 질문이다. 예를 들

p.66 어서, 누나가 어떤 물건을 늘 두는 자리에 두었는데 동생인 네가 누나 허락도 없이 그것을 쓰고는 아무데나 놓아두었다고 생각해 보자. 한참 후에 누나가 그것을 쫓려고 찾았을 때 제자리에 없으면 찾아야 하겠지. 그것이 찾아질 때까지는 그 물건은 잃어버린 것이요, 없어진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지 않겠니. 그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서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존재요, 없어진 존재가 된 것이다. 아담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확실하다. 아담의 대답이 그렇잖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1) 아담은 그 실과를 먹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는 가장 강한 표현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아담은 하나님이 존재하겠다는 선언이다. 즉 자존자(自存者)라는 선언이라는 말이다. 앞에 이야기 한 대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겠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강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제안하실 수 밖에 없었지. 하나님은 먼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고 물으셨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단다. 무슨 말이고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처음부터 아담 자

p.67 신 속에서 우리나라 생각과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요,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최종적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유혹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질문이다. 다음으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다. 이것은 “내가 나 하나님의 창조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고 생명 자체가 되었다고 주장하였구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주장이지. 그러면 그 주장 대로 하나님이 되어야지. 아담아, 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존재와 생명을 얻어오지 않고 존재하는,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지, 아담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였으니 나여호와가 너에게 준 존재와 생명은 나에게 반납해야지. 그리고도 네가 생명으로 존재하면 너는 물론 하나님이다. 자, 네 주장을 실현 시켜 봐야 하지 않겠니?” 라는 뜻으로 말씀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이 제안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이 제안을 거절 할 수가 없다.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없이도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해 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와 생명은 그냥 가지겠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존재와 생명을 반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 곧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 없이도 생명과 존재로 있다고 주장한 결과로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인 비생명 비존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것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에덴에서 나오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없어지는 것을 죽는다고

p.68 표현했지.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다. (롬 6:23) 그리고 죄는 불법이라고 하셨지 (요일 3:4). 사실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흙에서 아담의 몸을 빚으시고 그 빚어놓은 몸에 생기 즉 살리는 기운일 불어 넣으심으로 아담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나.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기운을 반납하면 산 존재로서의 아담은 없어지고 그의 몸을 빚었던 흙만 남게 될 것이 아니냐. 그가 생명으로 존재하기 전의 재료로 되돌아 간다는 말이다. 생기 곧 살리는 기운-힘-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흙은 원래 흙으로 되돌아가고, 그러니 아담이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이와 같이 아담과 여자는 비존재(非存在) 비생명(非生命)이 되고 만 것이다.

### 3) 죄는 비존재 비생명임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들이 죄를 정의할 때 “죄는 불법”(요일 3:4)이라고 정의한 말씀을 인용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는 말씀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는 말씀과, “모든 불의가 죄로되”(요일 5:17)라는 말씀을 들어서 죄를 정의한다. 이 말씀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분명한 정의이니까 누가 그렇다 않다 하겠느냐. 이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로마서 5:19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이와같이 불법, 불신, 불선행, 불의를

p.69 한 그것이 죄인데, 그 죄의 모습이 비존재 비생명이라는 말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죄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요, 종교적으로는 불신이며, 생활적으로는 불선행이요, 도덕적으로는 불의이다. 이것들은 비존재 비생명이 나타내는 당연한 모습이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비존재 비생명이 되었고 그 비존재 비생명은 앞에 말한 것을 본능으로 생활을 통해 행동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을 “죽은 행실”(히 6:1)이라고 말한다. 죽은 행실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자, 비존재 비생명이라는 말에 대해 생

각해 보자.

비존재라는 말은 존재하기는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비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은 생명인데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다. 참 묘한 말이지? 그러므로 이 비존재 비생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아담이 범죄하고도 역시 죽을 때까지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한 대로 존재하며 사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고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가 무(無)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비존재 비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란다. 사람의 이런 처지를 이해 할 수도 있도록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지. 그것은 너희들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이다. 누가복음 15:11-32에 있는 내용이지. 그 이야기를 여기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산을 얻어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 않았니? 그리고 마침내 돼지 냄새나는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 그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눅 15:24) 그러니까 이 아들이

p.70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와 상고나 없이 지낼 때는 그 아들 자신으로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앞에서 죽고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은 것으로 간주 하고 있었는데 돌아 왔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말한 것이지.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고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지. 자,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니. 그런데 그 아담이 아직 한 생명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즉 비존재 비생명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담 안에서 이미 비존재 비생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셈이다. 아담이 비존재가 되기 전에 낳은 유일한 생명 존재인 여자는 아담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미 비존재 비생명이 되고 말았잖니. 그러니 세상에 누가 있느냐? 생명적 존재는 아무도 없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지구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비존재 비생명이 된 사람 뿐이다. 이것을 가리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한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시편 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이후의 사람들은 그 존재와 생명 자체가 죄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존재 비생명이기 때문이다.

p.71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람이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가 비존재 비생명이므로 죄인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인하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1) 죄와 도덕성

이런 이유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고상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죄인이다. 성경이 죄

문제를 다룰 때에 근본적으로는 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그의 도덕적 상태가 그렇게 악하였겠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성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 보다도 훨씬 탁월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그리고 역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또한 역사적으로 뛰어난 현인들 도덕가들의 도덕성은 흠모하고 추앙받을 만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들이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고 한결같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롬 3:10)다고 성경은 단정한다. 이 말은 도덕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말이 아니다. 그것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롬 3:10)다는 말이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므로 비존재 비생명 곧 죽은 자가 된 자들의 썩는 모습이 도덕적 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

p.72 는다고 말한단다. 다음 성경을 읽어보자.

에베소서 4:18,19,22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썩어가는 구습을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형상이 비존재가 된 아담의 후손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도덕적인 죄라고 말한다. 이런 까닭으로 성경은 모든 아담의 후손을 죽은 자라고 부른단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엡 2:1)이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고전 15:22)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죄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성경의 죄 문제를 도덕성 문제로만 취급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죄가 유전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역사적으로 신학적 논쟁이 되어 온 문제들이다. 어거스틴은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편이고 펠라기우스는 그럴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논쟁이 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를 도덕성에서 찾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단에서 도덕적 성품을 가장 탁월한 도덕성으로 댁으라고 호소하고, 듣는 사람들은, 일상 생활의 도덕성이 배우고 읽는 만큼 탁월하게 되지 못하니 한숨만 쉬고 있고 복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착한 행실만 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오히려 성

p.73 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정죄하는 성질만 커지고 있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선하지 못하면 저래서는 안된다고 다그치거든. 아빠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장 탁월한 도덕성을 가져야하고 그것을 생활에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도덕성 자체가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알아듣겠느냐? 그런데 **존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도덕적 선과 의도 그것은 죽은 사람의 죽은 행실에**

**불과하다. 없는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의 행위를 “죽은 행실”(히 6:1, 9:14)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였단다.

이런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사용하셨지. 우리 잠간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생각해 보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16-18에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이것이 무슨 말이나? 여기서 말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포도나무 중에서 질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뜻하고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나 엉겅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앗이 나쁜 나무 씨앗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는 나쁜 나무가 되고 그 씨앗이 좋은 나무 씨앗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말이 아니겠니.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하게 하신 상태를 거절하자 그는 비생명 비존재가 되어 생명과 존재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p.74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후손은 비생명 비존재의 열매로서 비생명의 비존재요,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이 되고 만것이지. 아담은 원래 좋은 나무 곧 의의 나무(사 61:3)였으나 이제는 죄의 나무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존재가 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매도 죄일 수 밖에 없지 않겠니.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마 12:33)고 표현하셨다. 씨가 포도이면 나무도 포도나무이고 씨가 가시나무 씨이면 나무도 가시나무이다. 그런데 씨는 포도인데 그 나무는 가시나무가 되는 법은 없고 씨가 가시나무 씨인데 그 나무는 포도나무가 되는 법은 없다.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 수 있겠니?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고 하였지. 그러므로 죄가 몸을 이루는 육체에 유전이 되어있느냐 아니냐는 논쟁은 죄의 본질을 잃어버린 논쟁이다. 생명이 비존재가 된 자는 그 육체도 비존재의 육체이고, 생명이 존재인 자는 그 육체도 존재의 육체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자. 이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2) 죄의 창시자 사단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존재 비생명의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위하여 아담과 여자에게 계속 질문하셨단다. 그리고 그 최종 책임자인 뱀에게는 네가 왜 그리 하였느냐?는 질문을 하시지 않았지. 그것은 뱀 곧 사단이 비존재의 창시자임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란다.

창세기 3장을 계속 읽어보자.

p.75 창세기 3:11-15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

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흠을 먹을 지니라. 내가 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고 물으시고,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여느냐”고 물으셨으나, 뱀에게는 여자를 꾀인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저주를 선언하셨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명과 존재가 되겠다는 사상의 창시자가 뱀 곧 사단이라는 것을 밝히 위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여자가 범죄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사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뱀 곧 사단에게 꾀임을 받은 것을 분명히 밝혀 놓으신 다음에, 뱀에게 와서는 그 반역의 책임이 전적으로 뱀(사단) 그 자체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사단은 하늘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적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

p.76 나뉘고 동등하게 생명과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 위치 곧 하나님이 있게한 대로 있어야할 자기 위치를 떠났단다.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유다서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두 말씀은 같은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조해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 곧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게한 대로 있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화 했다는 말이 아니냐. 그 결과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심판은 이런 존재들 즉 하나님이 있게한대로 있기를 거절한 존재들을 그들이 선택한 대로 없도록 조치해주는 것이란다. 우주 안에 어떤 존재든지, 그것이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하나님이 있게한 대로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 없이 자기 스스로 있겠다는 말은 곧 없어지게 하는 때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큰 날의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이다.

이 천사가 어떻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는지는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啓明星)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

p.77 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천사는 그 이름이 계명성이었다. 영어로는 루시퍼(Lucifer)라고 번역했지. 그래서 우리

는 루스벨이라고 잘 부른다. 어쨌든 그 이름은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이런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그가 있도록 한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자기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즉 동등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처소를 떠났단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비생명 비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을 알게 된 루시훤 곧 사단은 이 지구에 와서 사람을 꺾어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한 같은 방법으로 반역하게 하였지. 순진하게도 여자가 이 꺾임에 넘어가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약과를 먹은 것이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뜻하는 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그것이 자존해야 하는 상태인 줄을 몰랐다는 말이다. 아빠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자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해주지 않아도 있다는 뜻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비로소 있게 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게 해주지 않아도 있을 수 있겠니. 그런데 그런 주장과 행동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있게 해준 존재와 생명은 반납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반납하고 나니 사람의 존재는 없어진 것이 되었는데, 그 없어진 것이 실제로 당장 무(無)로 돌아갔으면 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로 돌아가 없어져버렸는데 어

p.78 편 개념이 생겨나겠니. 그런데 사람이나, 제자리를 떠난 천사나 다 그 비생명 비존재가 된 그 생명과 존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들이 쏟아 놓는 부도덕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지.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어 없어지기로 결정한 모든 비존재들을 완전히 없게 할 때에 죄도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판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기별일 수 밖에 없단다(계 14:6,7).

그런데 천사는 죄를 낳을 수는 없단다. 왜냐하면 천사는 한 천사에게서 그 후손 천사로 생명과 존재를 전달 유전시키지 않기 때문이지. 다시 말하면 루시훤이 외의 천사들이 루시훤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다(마 22:30). 그러므로 루시훤 외의 천사들도 루시훤의 꺾임을 q다아서 자기 자신이 루시훤의 주장을 완전히 동의 하여야만 루시훤과 같이 비생명 비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시훤 한 천사가 비생명 비존재가 되었다고 루시훤 안에서 모든 천사가 비생명 비존재가 될 수는 없단다. 개개 천사가 스스로 그 사상을 자기것으로 동의 할 때만 그 동의한 각 천사가 개별적으로 비생명 비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그 처지가 천사와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아담이 한 생명도 낳기 전에 아담 한 사람이 비생명 비존재가 되면 자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한꺼번에 비생명 비존재가 되어버

p.79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비생명 비존재로 태어난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은 없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다. 모순 같은 말이지?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실상이다. 이런 비존재의 존재, 비생명적 생명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치고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죄인은 그 실상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 하였지. 그 죽은 행실의 실체가 무엇이나? 그것은 썩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한다는

것도 이야기 했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도덕적 악습들은 죽은 사람달의 죽은 행실 곧 썩는 것의 썩는 냄새일 뿐이다. 이렇게 비생명 비존재가 된 것을 신학적인 술어로 말하자면 원죄라고 한단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이 소위 원죄를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원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아빠의 이 설명을 신학자들은 빛이라고 할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성경의 설명은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미 비존재가 된 사람을 무로 돌려버리지 않고 이렇게 죄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이런 의문은 당연한 의문이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들으면 이와 같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생육의 법칙**을 제정하셨다. 또한 꼭 같이 선악과와 생명과로 말미암은 **존재의 법칙**도 제정하셨다. 이 두법칙은 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요 시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법칙이다. 그런데 이 두법칙은 경우에 따라서 충돌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만일 아담이 죽으면 생

p.80 육하고 번성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선악과로 제정된 법칙은 시행되겠지만 생육의 법칙은 시행될 수가 없다. 죽고 없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제정하신 이 두 법칙 사이에서 이 둘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신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일단 비생명 비존재로 처리하시고 즉 죄로 존재하게 하시고 죄의 존재로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죄 곧 비생명 비존재를 다시 생명으로 존재하도록 하실 때까지 유예하는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선고를 하시기 전에 **구속의 경륜**을 먼저 발표하셨단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창세기 3:15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 것이다.

#### 4) 여자의 후손 예수님

자, 생각해봐라. 이때까지 들은 이야기로 미루어 보면 여자의 후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생명을 유전시키는 책임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거든. 생명을 전달하여 산 존재가 되게 하는 책임은 남자에게 주신 것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비생명 비존재가 된 후에, 그 범죄의 최종 책임이 뱀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닌 다른 한 생명의 씨가 태어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겠니.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뱀 곧 사단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을, 뱀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p.81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바로 뱀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인 줄 사단은 몰랐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계속해야지. 생명을 유전시킬 책임을 가진 아담은 자기 안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그 모든 생명의 씨앗을 가진채로 비생명 비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아무런 생명과 존재를 생육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상실된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미 이야기 한 대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정녕 죽으리라는 명령, 이 둘을 다 시행하셔야만 되게 되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罪) 즉 비생명 비존재로 두셔서 실제적인 무(無)가 되는 것을 유예하시고 비생명 비존재로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허락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신 것이다. 남자 곧 아담에게서 잃어버린 생명과 존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이지.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유를 말할 때 이미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냐.

오늘날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여기 말한 여자를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옳은 견해이다. 성경은 교회를 예언적 표상으로 말할 때에 **여자로** 표상하였다. (계 12:1, 엡 5:22-32).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참 교회를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은 창세기 3:15의 예언의 일부를 말하는 진실이긴 하다. 그러나 이런 이해만으로는 이 말씀이 계시하는 비밀을 다 이해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언적 진리 교회를 통하여 오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자의 후손**이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유전되는 즉 **남자**

p.82 **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 곧 남자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한 생명의 근원이 올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 하자.

### (1) 하와라는 이름

아담의 아내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들 잘 알지? **“하와”**이지. “이브”는 영어 발음이다. **“하와”**가 원어 발음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니? 물론 아담이 지었다. 언제 지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언제 지었는지 잘 모른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지을 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다만 여자라고 지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창 2:23)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 하면서 하와라는 이름을 한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너희들 기억나니?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겠니? 그것은 아직까지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하와가 아니고 다만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난 자”라는 뜻이란다. 그러나 이제 여자의 이름이 **“하와”**가 될 때가 되었구나. 아담이 이 이름을 지은 것은 범죄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난 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이다. 이 사실을 확대 설명하여서 성경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창 3:20)라고 기록하였다.

왜 아담이 이때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고 지었을까? 어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교만하여 죽음을 선고한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심정으로 죽음이라는 말에 대하여 생명

p.83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이 이름을 지은 사건에 나타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뿐이다.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이르러온 결과를 너무나 잘 알았다. 자신이 비생명 비존재가 됨으로 자기 안에 준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모든 생명과 존재의 씨가 한꺼번에 비생명 비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잘 알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담은 당장 알았고, 그는 그들의 상태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본 것이다. 아담이 자기 안에서 잃어버린, 인류의 생명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완전히 회복될 것을 분명히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준 생명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다른 한 산생명의 근원을 약속하신 것을 알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하여 비생명 비존재가 된 그들이 그 비존재 비생명이 된 대로 유예된 삶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한 후손들이 바로 죄 자체로 세상에 존재할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죄는 완전히 죽고 처음의 생명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 생명이 여자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자기 아내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음으로 확실히 나타낸 것이었지.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다시 있게 하기 위하여 **아담의 생명과 관계없는 다른 생명의 근원을 세상에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실을 이해하는데 핵심되는 문제이다. 이 이치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유를

p.84 모르고 그냥 믿는 것이 된단다. 물론 그냥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만 믿어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주신 것은 구원의 도리를 잘 알도록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행 17:11)고 권면한 것도 이런 모든 이치들을 할 수 있는대로 다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이 이치를 잘 듣고 명심하고 있어야 하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벧전 3:15)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니.

## (2) 처녀에게서 나신 예수님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통지를 보낸 사실을 읽었지.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지.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처녀에게서 탄생해야 하는 것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같은 사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담 즉 남자의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이룰 것이라는 뜻을 이미 말하였잖니.

**여자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과 존재를 회복하고 사람을 죄의 자리에 몰아넣은 뱀 즉 사단을 멸망시킬 책임을 지신 분이 아니냐. 그런 분이 비생명 비존재 된 아담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지 않니. 만일 그렇다면 그도 이미 아담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비존재 비생명인데 어떻게 다른 비존재 비생명에게 생명과 존재를 줄 수 있겠니. 그러므로 죄가 된

p.85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구세주는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과 존재 자체로 탄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만일 결혼하여 남편과 부부 생활을 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도 비생명 비존재인 아담의 비생명 비존재인 후손일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오늘날 이런 성경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만일 예수님이 참으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는 구주일 수가 없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단호히 선언한다. 그 이유는 아담의 생명과 상관 없는 존재와 생명 자체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 밖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석가도, 공자도, 기타 어떤 성인, 종교의 창시자도 한결같이 남자 곧 아담 안에서 비생명 비존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 교리로서는, 도덕성을 함양하고, 비존재 비생명인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도록 도울 수는 있을지라도 비존재 비생명을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할 수는 없단다. 아까 아버지가 말하였지, 오늘날 신학자들이 죄 문제를 도덕적 차원에서만 취급하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받는다는 독선적인 주장을 하느냐는 항의와 의문이 생기는 것이란다. 도덕적으로 최선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구태여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구원이란 도덕적으로 선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천당 가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참 존재와 생

p.86 명이 되는 것이다. 비존재 비생명이 아무리 선하다고 한들 그 선이 어디 있느냐. 없다. 없는 자가 하는 선은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추앙할만하여 성자, 성인으로 추앙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선은 결국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이다. 다만 비존재 비생명의 세상에서의 도덕일 뿐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느냐? 이 비존재 비생명이 존재와 생명이 되기 위하여 존재요 생명인 분에게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와 생명에게 삼키워서 그 안에 있을 수 있게 될 때에 그 존재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고린도후서 5:2,3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비생명 비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존재에게 삼키워져서 그 생명 그 존재를 덧입는 결과를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하여 우리는 존재와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러므로 비존재 비생명인 인류를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는 존재와 생명이 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곧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생명자체이신 분이, 아담 안에서 없어져버린 존재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담과 상

관없는 생명으로 세상에 오셔서 뱀을 멸망시키고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을 비존재 비생명으로 부터 생명과 존재

p.87 로 회복시킬 것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은 처녀에게 탄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그가 참 구주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참 구주가 되는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숫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만 한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하지 않았다. 그런 분이 당신 자신의 그 영존하신 생명을 가지고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인간으로 잉태하신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 뿐이다.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기원이 되시고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 되셨다. 예수 안에서 모든 비생명이 다시 생명이 되고 모든 비존재가 다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에게 탄생하는 사건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하신다. 다음 성경을 읽어보자.

예레미야 31:22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을 여호와가 창조하는 새 일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단다. 말세에 세상이 부패하여,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성도덕의부패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여자) 하나님(남자)를 찾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p.88 부부 관계의 회복을 뜻한다고 하기도 하고, 여자 같이 약한 이스라엘이 남자같이 강한 바벨론을 이기고 돌아올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해석들은 모두 일리가 있는 해석들이지. 그러나 이런 일들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구나 여기 창조라고 한 말은 원어로 “바라”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없는데서 있게하신 일에만 사용된 성경 용어인데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니. 그 새로운 창조가 “**여자가 남자를 안는**”일이 아니냐. 이것이 무슨 뜻이겠니?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여 그 품에서 자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아니냐. 그 일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이다. 비존재 비생명이 세상에 존재와 생명을 새로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이 이때 비로소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데 그런 분이 비존재 비생명이 된 인류를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를 자청하여 그때까지 없었던, 처녀 자체만으로 잉태하게 하는 새 일을 통하여 존재와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곧 마지막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신 것이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고전 11:12)난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전하는 말을 듣고 놀라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눅 1:34)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니? 마리아가 남자가 어떻게 생

졌는지 모른다는 말이겠니? 결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남성을 성적으로 경험한 일이 전혀 없는 숫처녀라는 말이다. 성경이 말한 방법대로 말하면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 이미 말했던 대로 그 당시는 시집 안간 여자가 아기를

p.89 베면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되었던 시절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의 순결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에 동침(同寢)이라는 말이 꽤 많이 쓰인 것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구약성경에 대강 46회쯤 쓰인 것 같다. 원어로는 너댓가지 단어들에 쓰였으나 그것을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동침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지. 신약성경에는 이 말이 꼭 한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그 장면이 참 흥미롭다. 물론 같은 뜻으로 다른 낱말이 쓰인 곳이 있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낱말이 자주 나타나면 덕스럽지 못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을 구태여 썼을까? 여기에도 **여자의 후손과 관계된 사상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계시적 섭리가 기이하지 않니. 창세기 4:1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고 기록되었다. 뒤에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하와는 창세기 3:15의 여자의 후손을 자기에게서 낳 남자를 가리키는 줄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지. 그 가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라는 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동침하여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남자의 후손일 뿐이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전혀 없는 숫처녀에게서 나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마리아의 순결한 처녀성을 분명히 밝혔고, 아까 말한 우리 한글 신약성경에 꼭 한번 동침이라는 말로 번역한 말이 쓰인 장면이 바로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장면이다. 거기는 동침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침이라는 단어를 썼단

p.90 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이 아니하더니**”(마 1:24,25)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전혀 없는 숫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녀 자체만으로 잉태하게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아무 처녀라도 처녀 혼자만으로 잉태할 수 있게 했다는 말이 아니다.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자기의 영존하는 그 생명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잉태를 위하여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고 천사가 말하였지,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씨가 되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생명을 나누어준 자로서의 사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요셉은 다만 양부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자의 후손인 것이다. 그래서 처녀에게 탄생하신 것이다.** 알겠니?

그래서 창세기 3:15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약성경 갈라디아 4:4에서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말한 것이다.

### (3) 해산의 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나 여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과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를 하신 것이지.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뱀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p.91 뱀 곧 죄의 창시자로 비존재 비생명의 근본인 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 그의 꾀에 빠져서 죄가 된 아담과, 아담 안에서 도매금으로 비존재 비생명이 된 모든 그의 후손은 죄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말로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발꿈치를 상하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해산의 수고라는 말로 표현하셨지. 사람들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을 그런 것보다는 비생명 비존재가 된 사람의 그 비생명 비존재를 완전히 처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존재하고 영생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의 모습을 사람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란 것이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아라. 사람을 저주한 말이 한마디도 없지 않다. 거기서 저주를 받은 것은 뱀과 땅이지. 사람은 아니다. 땅을 저주하신 것도 사람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비생명 비존재가 된 사람은 그 자체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썩을 수 밖에 없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썩는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신 것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람이 땀흘리며 수고롭게 일하는 동안 도덕적으로 급속히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새싹이 돋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더욱 체험하며,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구주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뜻이,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허락한데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그것은 비생명 비존재의 현상이긴 하지만, 유예

p.92 된 생명적 존재를 낳는 것이 아니냐. 이때 여자는 고통을 당한다. 여자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고통하고 낳은 아이를 산자가 되게 길러야 하지 않겠니. 진정으로 산자가 되게 하려면 여자의 후손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손으로 오신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계 1:18)의 생명에 연결시키는 신앙으로 기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통 중에 포함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의미를 아는 어머니들이 누가 있겠니. 모든 어머니들이 이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니.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을 여자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셨다. 다음 성경을 보자.

요한복음 16:20-2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 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제자들의 근심을 보시면서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다 비유하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그 고통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 생명이 난 것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 않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p.93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그 결과 새로운 생명과 존재가 있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기쁨을 누가 빼앗겠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자에게 하신 해산의 수고와 고통의 의미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비생명 비존재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의 고통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한다.

갈라디아서 4: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는 여자의 후손인, 생명과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생명과 존재를 다시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분이 아니다. 이미 공부한 대로 그는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나. 그분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었고 아담과 여자도 창조되지 않았나. 그때 아담에게 생명을 주아 산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분이셨지. 그런데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되어 세상에 오셔서 또 한번 비존재 비생명을 존재와 생명으로 살려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전 15:45)다고 말씀하셨단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려 주시는 분이시다. 태초에 아담을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또 한번 살려 주는 분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말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죽어버린 자신과 자기 안에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을 확실히 알았지. 그래서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리라는 비생명 비

p.94 존재의 확실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인 여자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고 지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었다.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아담의 비존재 비생명을 처리하고 생명과 존재를 주실 것인지를 보여 주셨다. 그것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이다(창3:21). 하나님이 가죽만을 창조하시지 않았잖나. 그러니까 가죽을 얻기 위하여는 가죽을 낼 수 있는 어떤 생물이 죽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위하여 죽은 동물이 있다는 말이다. 죽는 것은 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지. 즉 창조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러므로 비생명 비존재인 아담과 여자와 그의 후손들은 마땅히 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은 헛일이 되고 말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일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담과 그에게서 나온 모든 비생명 비존재가 무로 돌아가게 하는 대신에 여자의 후손을 무로 돌아가게 하시므로 비생명 비존재를 완전히 처리

하시고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이루신 이 일에 의하여 존재와 생명이 되도록 하실 것을 짐승을 죽이는 일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것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것이다. 그 무화과 옷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초라한 모습이지.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들을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지 못하였다. 오직 비존재의 비참함을 표상할 뿐이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 64:6) 라고 나뭇잎 옷의 비참함을 묘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p.95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생명이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옷 이란다. 이옷을 위하여 짐승이 죽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비생명 비존재인 아담이 없어질 것을 대신 하시고 아담과 그 안에서 지음을 받은 모든 후손을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시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마련한 생명과 존재를 표상하는 것이란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우리는 잘 표현하지. 이때 죽은 짐승이 무슨 짐승이었을까? 양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요한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지.

계시록 13:8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구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라고 번역하였구나. 그러나 원문은 이 두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모양이다. 그러면 어느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에 합당하겠니. 창세기 3:21에 가죽옷을 주기 위하여 죽은 짐승이 바로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짐승이 아니겠니? 그 짐승이 양이라는 말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양인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한 그 상함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죽음을 뜻하는 것을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이 뜻을 알았다면 아담이 얼마나 울었겠니.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 후에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또한 울 수 만은 없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

p.96 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사 53:10,11).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즉 당신이 비존재 비생명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시고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생명과 존재가 되는 그 씨를 보게 되는 것을 만족히 여기셨다. 그래서 너희들과 이 아빠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존재가 될 수 있었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그런데 하와는 이 이치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 같다. 다만 여자의 후손이, 원수 뱀을 멸하고 죄가 된 자기들을 다시 존재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하와 자기 몸에서 낳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고 기뻐하였지. 그러나 그 아들은 아담과 동침하여 얻은 아담의 비존재 비생명의 씨였을 뿐이었다. 이 사실을 조금 전에

이야기 하였지.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숫처녀**에게 탄생해야 할 분명한 예언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는 계시의 말씀이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눅 1:27)고, 그 여자가 **처녀**라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말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단다. 이것이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이사야서에는 더욱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고 말씀하셨지. 마태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23에 말하였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모든 이유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탄

p.97 생하신 것이며, 그래서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인, 비존재 비생명인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이심에 틀림없는 것이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나! 자 그럼 또다른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만 했을까? 정혼하지 않은 숫처녀에게 탄생하셔도 될텐데 말이다. 이 문제를 알아봐야 할 때가 되었구나.

p.98

### p.99 제3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신약성경을 읽으면 자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셔야만 하는가?

신약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시작한단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 족보를 열거하면서 14대씩 세 번으로 나누었다. 내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다. 형식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 14대, 포로된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나누었지만 거기에는 억지로 그렇게 한 표가 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때까지 14대로 맞추기 위하여 세 왕의 이름을 빼내었거든, 마태복음 1:8에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라고 하였으

p.100 나, 구약성경 역대상 3:11,12을 읽으면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야, 그 아들은 요아스, 그아들은 아마샤이다. 그러니까 14대로 맞추기 위하여 이 세사람의 이름을 빼버렸다. 또한 11절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여기도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이 빠졌다. 그래도 마태는 17절에서 모든 대수가 14대씩 세 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족보를 세어보면 모두 41대 밖에 안되는데 마태는 42대로 계산했거든. 마태는 세리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산에는 정확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린 대수를 적었을까? 마태복음 주석가들은 따라서 세 번째 14대를 13대로만 보려는 사람과,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보게 된다.>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대요”(마 1:17)라고 설명한 것을 따라서 다윗을 두 번씩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41대 인데 42대로 보았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구나. 나는 이

두 번째 견해가 흥미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무척 좋아하고 존경하거든,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전기를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흥미를 돋구려고 생각했을 것이 아니냐.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마태의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막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세면서 14대를 세었지. 또한 왜 하필 14대씩 억지로 맞추었는지도 궁금하잖니? 그 14도 다윗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히브리어 자모(字母)도 수치(數值)를 가지고 있단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글자는 “달렛( ) 와우( ), 달렛( )”으로 되었거든, 이 세 글자의 수치를 합하면 14가 된다. “달렛”이 “4”이고 “와우”가 “6”이다. 그러니까 두 “달렛”과 한 “와우”니까 14가 아

p.101 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다윗의 이름을 직접으로 여섯 번 부르고, 숫자로 세 번을 부른 셈이지. 마태가 복음서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하였으나 부르기는 계속 다윗을 부르고 있다. 그만큼 유대인은 다윗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세계를 지배할 이스라엘 왕국의 영원한 왕의 역사적 모형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하는 것은 비록 유대인의 기대가 좀 잘못된 데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이런 사상과도 관계가 있고, 그 보다는 더욱 구약성경의 예언과 관계가 있다.

### 1) 예언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2,33)고 말씀하지 않았나. 이 말씀 중에 다윗을 “그 주상”이라고 불렀다.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왜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마 1:20)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집약한 말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그 위치가 세 대륙의 육교(陸橋)가 되어 있지 않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든지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든지 간에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으레히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잖니. 중국에서 일본을 가려 한다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밟아야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는, 그 나라가 강국이면 몰라도 그

p.102 령지 않으면 주위의 강국들에게 침략당하기 아주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주위의 강국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지배당하였다. 다만 다윗과 솔로몬이 왕노릇할 때를 제외하고 말이다. 애굽에게, 앗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그런 나라의 국민이 기대하는 바는 다시 한번 다윗 시대와 같이 세계적 강국이 되어 세계를 지배해 봤으면 하는 것이 아니겠니? 그런데 이런 그들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졌는데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는 말이었던단다. 다윗의 왕좌는 강대국의 왕권을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 통치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시편 89:3,4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시편 89:35,36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사야 9:6,7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자금 **이 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

p.103 **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원래 위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읽은 말씀이 아니냐. 그런데 바로 이어서 7절에 그 정사를 멘 아들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 분이 바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있었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스가라는, 예언한 아들 요한(침례)를 낳은 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기록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눅 1:69-71)고 노래하였다. 이 사실은 천사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미 말한 사실이 아니냐. 사도 바울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롬 1:3)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혼도 하지 아니한 슷처녀에게서 탄생하시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게 된 것이라.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족보를 통하여 오시지 않으면 그 역시 성경이 지시한 메시야가 아니다. 하나님은 메시야 곧 여자의 후손의 출현에 대하여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미리 완전히 말씀을 공개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예언된 그 길을 따라 오지 않으면 그는 메시야가 아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을 세상을 구원할 대선지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들도 모세 오경을 믿고 있다. 그러나 마호멧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야 곧 구주의 조건에 어림도 없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세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p.104 오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는 유대의 왕족 다윗의 집안에서 오셔야 하되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 하는 것이다.

정혼만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집 족보에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물을만한 내용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두가지이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다윗 계통의 왕들의 족보를 따라 기록된 것이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부터 아담,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족보이다. 이 두 족보가 조금씩 다르지. 이 두 족보에서 가장 다른 점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마 1:16)이요, 누가복음에는 헬리(눅 3:23)이다. 어떻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둘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니?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다. 그 한가지는 요셉의 할아버지 이름에 대한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맛단, 누가복음에는 맛닷이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나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족보 자료를 사용했을 것이거든. 그런데 이 두사람이 사용한 족보자료가 다른 것일 수 있지 않겠니. 그 자료는 물론 히브리 글자로 쓰여졌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히브리 글자는 조금만 잘못 쓰면 글자를 혼돈하게 된다. “맛단”이라고 쓸 때의 끝 글자는 “맛닷”이라고 쓸때에 끝 글자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맛단”인지 “맛닷”인지 분별하기가 힘들는데서 생긴 기록의 차이로 같은 사람의 두가지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맛단 혹은 맛닷은 야곱과 헬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형이요, 헬리가 아우이다. 그런데 형 야곱이 장가 들어 살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자 모세의 법대로 동생인 헬리가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 낳은 첫아들이 요셉이요, 그 요셉은 모세가 가르친 대로 죽은 야곱의

p.105 법적 아들로 호적에 등록이 되었다는 말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25:5,6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의 후사를 잇게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고 기록하였잖니.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고 실제로는 헬리의 아들인데, 마태는 왕위 계승의 족보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호적상 법적 아버지를 기록하였고, 누가는 왕의 계통을 쓴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 아담과 관련하여 요셉의 혈통적 아버지를 기록한 것이라는 해석이지. 이와같은 해석은 합리적이고 두 복음서의 차이 나는 족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있다.

또다른 견해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한 것인데 유대인의 관습대로는 여자의 족보는 쓸 수 없으므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을 빌어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래도 두 족보가 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로 한참 다른데로 빠진 것 같구나.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족보에 올리기 위하여는 다윗 계통의 남편이 정해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하지 않겠니. 만일 마리아가 정혼을 하지 않은 처녀로서 아들을 낳았다면 예수님은 어느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겠니? 그렇게 되면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동시에 그가 참으로 처녀에게서 났다고 해도 그가 성경이 지시한대로의 구주라는 증거를 가질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질문한 내용

p.106 은 정혼만 했는데 어떻게 그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의 결혼관례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된다. 바클레이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에게는 결혼의 세 단계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 단계는 약혼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절차없이 파혼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즉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결혼을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약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단계는 정혼의 단계이다. 이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 단계라

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혼을 하려면 이혼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단계이지만 아직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단계이다. 마지막 셋째 단계가 결혼의 단계이다. 이것은 한 집에서 동거하는 생활을 하는 단계이지.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서 왜 정혼만 한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정혼을 한 것은 이미 그 남자의 가족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혼하고 동거 즉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주 합법적으로 요셉의 집 호적에 이름이 오르게 되고 그것은 당연히 다윗 왕의 혈통으로 기록되게 되어서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또한 누가복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눅1:27)고 기록하여 “정혼”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결혼단계에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으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

p.107 지 않겠니. 왜냐하면 아직 결혼 생활하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는 결혼의 단계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아무에게도 의심없이 그 호적에 이름이 올라갈 것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지시한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1:20). 이 지시를 받고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 1:24,25). 이 기록을 보면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은 즉시 마리아를 데려온 것을 볼 수 있지. 그리고 만삭이 다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도 “정혼한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동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이 아는데로 요셉의 아들이니” (눅 3:23)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런 모든 계시를 믿는 우리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줄 알지.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법적으로 예언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위를 여우언히 차지하녀 세계와 우주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것이다.

## 2) 다윗의 자손이 아닌 예수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을 생각하게 된다. 성경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롬 1:3)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

p.108 게 생각하게 되지. “혈통”이라고 말하면 생명을 유전 받은 조상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설명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허리에 있었다는 뜻이 된다는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도 되고 또한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도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오셨다는,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와 죽은 생명으로 오신 단순히 아담의 모든 후손 우리와 똑같은 비존재 비생명일 수 밖에 없고 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의 존재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된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분이 다윗에게서부터 생명을 이어 받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다만 다윗의 후손이라는 법적 족보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 하였으나 아직 동거하기 전인 “**숫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씨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결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 하셨다.

마태복음 22:41-45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 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 네 밭

p.109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당신 자신이 다윗의 자손일 수 없는 이유를 밝혀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진짜 다윗의 생명을 통한 혈통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사상이 깨어지기 전에는 참 메시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메시아는 다윗의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 즉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 자체로 와서 아담 안에서 죽은 곧 비생명 비존재가 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메시아 자신이 죽으므로 비존재 비생명이 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 처리하시고, 당신 자신의 고유한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던지시 가르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였다.

요한복음 1:4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1:1,2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담이나 다윗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힘 있게 증거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은

p.110 생명 자체요 존재 자체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 36:9)라고 구약성경도 말하였지. 이 말씀은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과 같지 않나? 그는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선재(先在)하셨다고 말한다. 이 선재의 사실에 대하여는 구약성경 미가 5:2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를 예언하면서도 말씀하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우리들은 비록 비존재 비생명이라도 부모로부터 태어나야있지 않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아도 생명과 존재로 계시되 인격적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비존재 비생명이 되어버린 아담의 모든 후손을 다시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빌 2:6,7)신 것이다. 얼마나 큰 희생이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은 다윗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는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나. 그분은 오히려 다윗을 다윗으로 있도록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른 것이지.

이런 뜻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한다. 뿌리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족보상 법률상 위치를 차

p.111 지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의 집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오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다.

계시록 22:16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사야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면 그 아버지 이새의 뿌리임에도 틀림없지. 사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뿌리이시다. 이미 이야기 한 대로 그분은 처음부터 살려주는 영(고전 15:45)이었으니까 생명의 근원으로서 뿌리일 수 밖에 없지 아니하나. 아담이 이 뿌리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그의 모든 열매도 떨어져서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취하여 세상을 영원한 통치로 다스리며 모든 아담의 후손을 생명과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뿌리인 그 생명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가지라고 표현한 것이란다.

이사야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10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 말씀은 뿌리 자체에서 싹과 가지가 날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연결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한다. 이런 모든 것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p.112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더 확인 한 것이지.

이런 예는 인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그 생명의 혈통이 아니라도 그 집안이 되는 것 말이다. 어떤 일이 그러냐? 옳다. 양자를 하면 그렇게 된다. 큰집이나, 작은 집이나, 혹은 친척 집에서 양자를 하면 혈통은 같은 혈통이라 할 수 있겠지만, 만일 고아원에서 성도 인종도 전혀 다른 아이를 양자로 하여 양 아버지의 성을 따라 호적하면 그 아이는 양 아버지 집안의 위를 차지하지만 그 생명의 씨는 전혀 다른 집안에서 온 것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비유하자면 이와 비슷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전혀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일을 다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를 택하여 탄생한 사건인 것이다. 즉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아담의 생명과 전혀 상관 없는 여자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얼마나 정확하냐!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는 것을 이미 말하였지.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아 그 속에 있게 하셨고”(요 5:26)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이 두 사실은 모순 같이 보이지. 예수님이 생명자체이면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문제를 이미 이해하였으면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고 아버지가 있다

p.113 는 말은 생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뜻이 아니냐. 예수님이 아들의 위를 자원해서 취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문제도 아버지께 위탁하신 것이다. 그래야 아버지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자원하여 아들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가장 합리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성립하고 그 안에서 인류도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님과 부자(父子)관계가 되도록 하신 것이지. 그래서 구원 받은 모든 사람도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되고 하나님을 친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라”(요 14:6)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받았다고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인자(人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다.

자, 이만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치를 알겠지. 이런 문제들을 밝히 알면 예수님의 본성이나 인성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하는 주장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감격하고 말로 표현 못하는 감사의 심정이 일어나

p.114 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요한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요일 3:1)고 외치게 되지 않겠니!

p.115

#### 제4장

####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모두 아담 안에서 비생명 비존재 곧 죄와 사망이 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생명과 존재가 되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오,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자원하여 자기를 비운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모습이었음을 알았지. 그런데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사실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에 의미가 거의 다 포함되었지만 이제 잠깐 동안 이 말씀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야기 해보자.

p.116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 대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친히 생명이신데, 세상에 탄생하실 때 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셨으며,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탄생하셨을까? 당신 자신이 그냥 처녀에게 탄생하시면 간단히 될텐데 말이다. 여기에서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오묘한 이치와 섭리가 있다.

생명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구나. 비존재 비생명이 된 인류를 구원하여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이스라엘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인류의 구주로 세상에 오시는 데 그냥 신성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되기로 자원하신 분은 자기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고 하나님은 이 존재와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일하셨다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요5:26)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란다.

또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예수님이야 말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나셨으니 **영이실 수 밖에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아마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리둥절할는지 모르겠네. 언제 예수님이 사람이 영이

p.117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해서 말이다. 또한 사람이 어떻게 영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사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한 곳은 없다. 그러나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그렇지 않니? 잘 읽어 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 3:3-7)고 하셨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못들어가기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냐. 그러므로 육인 사람이 성품을 변화시켜서 성화를 이

루어서 그 성화된 성품으로 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지. 왜냐하면 육인 사람은 성과가 된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도덕적 성품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면서 성품의 변화나 성화가 도덕적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철철 넘치고 희생과 봉사가 뛰어나고 이웃을 대하여 몸을 불사를 정도로 사랑을 나타내면 그것이 성품이 변화된 것이고 성화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20세기의 성자로 불려진 슈바이처는 분명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겠니?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간디는 어떠

p.118 니? 요즘 산 성녀로 알려진 테레사 수녀는 또 어떠니? 도덕적 차원에서 성품 변화와 성화를 말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성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화나 성품의 변화는 그런 도덕적 차원 이전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존재와 생명의 차원이다.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니. 성경이 말하는 성화나 성품의 변화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비존재 비생명이 된 사람은 결국 없어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니. 없어진 것이 있기 위하여는 창조되어야 하고, 없는 사람이 있기 위하여는 태어나야 하지 않니. 이와 같이 비존재 비생명인 사람이 존재와 생명이 되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생명으로 탄생하셨으니 영일 수 밖에 없지 않니. 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만하지.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시기 위하여서란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비생명 비존재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어머니에게서 탄생하실 때부터 거듭난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와 생명이 되며, 그들의 생태(生態)가 어떤 생활로 나타나지게 되는지를 보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생명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셔

p.119 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죄의 세상에서 죄 없이 사는 삶의 본으로 보여 주신 것이란다.

만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지 않았으면 사람이 거듭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거듭난 사람의 생활이 어떠한지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살아가신 모든 삶의 모습은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의 생태(生態)를 보여주시는 삶이 되셨다는 말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본(본전 2:21)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본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과 생태의 변화 문제는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은 것이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셔서 육신에 있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육신에 있지 않다니 그것은 또무슨 말인가 싶지? 육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

### 1). 육신이라는 말

성경에 육(肉), 육신(肉身), 육체(肉體), 혈육(血肉)등의 말이 많이 나온다. 한글 성경에는 몇 가지 원어가 이런 말로 번역 되

p.120 었다. 우리 말로는 이 말들과 비슷하게 쓰여지는 것이 몸이라는 말도 있고, 신체(身體)라는 말도 있지. 우리 나라 말만 가지고는 이 말들의 뜻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국어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말이다. 물론 “육”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육체, 육신, 신체 등은 사람의 몸을 뜻하는 말이 아니냐.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몸”, “물질적인 신체”등의 뜻이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헬라어 “살크스( )”가 주로 육, 육신, 육체라고 번역되었다. 이외에도 몇가지 원어들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하면 복잡하기만 할 뿐이지 무슨 큰 도움이 되겠니 그러니 구약성경은 거의 전부가 히브리어 “바사르( )”가 그렇게 번역 되었지. 그런데 이 “바사르”나 “살크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경우로 쓰인 것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한가지 뜻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면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단순히 몸을 이루는 물질적인 재료를 뜻하는 말로 이 말이 사용된 경우가 있고,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상관 없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말이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된 존재, 즉 죄인을 가리킬 때도 있다는 말이다.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자.

요한복음 6:51-56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p.121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크스”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씀이 아니냐. 이 말씀 속에 살크스 즉 육은 예수님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 재료로서의 살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 살크스라는 말은 타락한 육체를 뜻하는 말일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다는 것은 타락한 육체를 먹는다는 뜻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타락을 먹는 것이며, 죄를 먹는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결코 그럴 수가 없지. 그러므로 여기는 단순히 사람의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살크스를 뜻할 뿐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은 부활하신 후의 살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사람으로서의

살이 아니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조금전에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마28:26)고 하셨지. 그리고 이것을 항상 행하여 기념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간 예수님의 살카스 곧 육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요 1:14)었다 할 때에 “육신”은 “살카스”인데, 이것이 무슨 뜻으로 쓰였겠니? 말씀이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이겠니? 결코 그런 뜻이 아니겠지?

p.122 그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육 곧 살카스란 말은 단순히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신약성경에서 살카스는 아담의 타락한 죄가 있는 육체만을 가리킨 말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성경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별 책임감 없이 아무렇게나 한 말일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4,5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고 하셨는데, 여기 “몸”이라고 번역된 말이 살카스이다. 이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2:24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살카스는 타락한 살카스가 아니다. 창 2:24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지으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때의 살카스이다. 그런데 어떻게 신약성경의 살카스는 모두 아담이 타락한 후의 타락한 육체로서의 살카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창세기의 이 말은 히브리어 “바사르”란다. 그러므로 살카스가 사람의 몸을 이루는 물질적 재료로서 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또 그 연장선에서 단순히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나. 요한복음 17:2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여기 “만민”이라고 번역된 말은 “파사 살카스”인데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것도 살카스가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인 예이다.

그런데 이 살카스 곧 육, 육체, 육신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은 죄의 인격을 가리키는 말로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이란단다.

p.123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하여 비생명 비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을 가리킬 때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죄의 존재를 뜻한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니 예수님이 죄의 인격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곡해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성경이 이런 뜻으로 사용한 육 곧 살카스에 대하여 살펴보자.

창세기 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됴이라.

여기 육체는 “바사르”이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바사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살카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육체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지. 그렇다. 성경이 죄의 인격자를 육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무 사람이나 살카스를 재료로 지어진 존재를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 곧 성령이 없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비존재 비생명이 아니냐. 이 비존재 비생명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요 육이라는 말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육이란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으니 이런 의미의 육일 수가 없지 않나.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아까 아버지가 “예수님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한 것이란다. 이제 내 말의 뜻을 알겠느냐?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이다.

p.124 유다서 11 이 사람들은 땅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기서도 육에 속한 자를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였지. 물론 여기 육신이라고 한 말은 살크스가 아니다. “푸쉬키코스( )”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의미 상으로는 같은 뜻이다.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자.

로마서 8:8,9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봐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5,6과 같은 뜻이 아니냐.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면 그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이쓴 자라는 말씀은 같은 뜻이지. 육으로 난 자라야 육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것은 아담 안에서 성령이 없는 육이 되어버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거듭남의 도리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되 여자의 후손 곧 성령이 없는 육이 되어버린 아담의 존재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스스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오실 수가 있었을 지라도 이 구속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다는 말이다. 구속의 이치에는 빈틈이 없다. 확연하지 않나.

p.125

## 2) 영의 생명

아버지가 죄 문제가 도덕성 문제 이전에 존재와 생명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 하였지. 이제 다시 한번 죄와 생명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자. 죄는 사망이 아니냐. 그러므로 생명이 원래적인 의미의 생명일 때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 죽을 수 밖에 없는 생명이 되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영원히 있는 존재, 영원한 생명일 때에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다. 죄가 되었을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셔서 생명과를 못 먹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야기 하였지. 그러므로 죄는 곧 사망이라는 말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롬 5:12)라는 말씀들은 한결같이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말씀들이다. 만일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죄가 없다면,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 곧 살크스도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니? 그는 죄 없는 생명인데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크스는

죄의 성질이 있다고 한다면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지. 그 살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마치 어떤 그릇에 꿀을 담았는데 그 그릇의 재료가 꿀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다. 하기가 오래 꿀을 담아 두면 그 그릇에도 꿀이 배어서 꿀 그릇인 줄을 당장 알 수 있겠지. 그

p.126 렇다고 그 그릇이 꿀의 성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더라도 꿀을 담았으면 꿀 그릇이요, 질그릇이라도 꿀을 담았으면 꿀 그릇이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을지라도 똥을 담아두면 똥 그릇이요,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꿀을 담아 두면 꿀 그릇이 아니겠니. 그런데 그 그릇의 재료가 똥 성질을 가졌다. 꿀 성질을 가졌다 한다면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을 그릇으로 비유한 곳이 많다. 자, 성경을 찾아보자.

로마서 9: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디모데후서 2:20,21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고린도후서 4:6,7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말씀들이지. 그리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잖니. 그러므로 보배를 담은 그릇은 보배 그릇이요, 죄를 담은 그릇은 죄 그릇이다. 마태복음 23:25,26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p.127 있지 않을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은 그릇의 재료와 관련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탐욕과 방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 속에 든 것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면 그릇 자체도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냐. 속에 그런 것들을 두고 그릇의 겉만 아무리 씻어도 그릇이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릇 자체의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냐. 우리 몸은 질그릇이요 예수님의 몸도 같은 재료라는 말씀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그릇 자체가 보배도 아니고 죄도 아니잖니.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면 그의 정신, 그의 몸, 그 몸의 재료인 살, 이 모든 것이 죄와 관련 되었으니, 이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사람이 의인되면, 그의 정신, 그의 몸, 그 몸의 재료인 살 등 그의 모든 것이 의와 관련된다. 이는 그 존재 자체가 의이기 때문이 아니지?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의인이 있을까 의심이 되지.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롬3:10).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벧전 3:18),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

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일 2:1)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였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고 또 그 생명 자체도 죽을 수 밖에 없는 생명도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도 죄가 없다.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에 죄가 없음을 증명하신 사건이 있단다. 그것은 변화산의 사건이다. 예수님은 따

p.128 로 높은 산에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용모를 변형하셨을 때 그 얼굴은 해 같이 빛났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었지 (마 17:1,2). 그때 얼굴만 변화되었을까?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지.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벧후 1:16,17).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그 변화산에서의 변화는 온 몸이 변화 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죄의 육신 곧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그런 변형이 불가능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요 생명 자체시며,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 곧 살크스로 구성된 몸을 변형하여 영광의 몸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신 것이었다는 말이다. 지금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죄가 육신 곧 몸을 이루는 재료인 살크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죄는 살이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존재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영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시다. 물론 그의 육체 곧 살크스도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영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다. 물론 그의 육체 곧 살크스도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에 죄의 경향이나 죄의 성질이 있다는 것은 육이라는 말의 쓰임새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이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비존재 비생명으로서의 죄의 인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p.129 탄생한, 죄와 조금도 상관없고 아담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생명과 존재 자체로 오시되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재료인 그 같은 살 곧 살크스로 구성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는 전혀 죄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탄생하셔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 곧 영의 생명 영의 존재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요일 3:5)요. “죄는 없으신”(히 4:15)자이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느냐?

### 3) 육체와 죄 문제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도덕성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도덕성은 인간의 감각적 욕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만일 어떤 사람이 마약을 사용했다고 해보자. 그는 그 마약이 주는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후에는 그 마약이 정신과 건강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만 두려고 결심을 해도 그 마약이 주는 쾌감이 그의 오관을 자극하여

그를 마약이 주는 감각의 노예가 되게 하거든. 이렇게 되었을 때 그의 육체 곧 오관이 죄의 경험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감각 깊숙이 박혀 있어서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형성하게 된 단다. 아버지에게 담배와 술이 전혀 유혹이 되지 못하게 된단다. 물론 너희들에게도 그렇지. 왜 그러냐? 그것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극하는 욕망이 없고 또 지식으로도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단다. 그러므로 죄의 경험이 없는 육체의 감각은 죄에 대하여 깨끗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일단 아담의 후손이 되

p.130 었던 사람에게는 전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었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경험이 유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의 감각적 욕망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살크스에 죄성이 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감각적 욕망이 사람들을 도덕적 죄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약 1:17)라고 말한다. 그러나 원래의 인간의 욕망은 선한 것이었다. 그 욕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창 2:9)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고 좋은 것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지. 이런 마음이 욕망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욕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욕망이요 그럴 때의 그 욕망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란다.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의 아담의 욕망은 선한 것이 아니었겠니.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는 그의 선한 욕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욕망 자체가 죄의 욕망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욕망은 감각 기관, 시각(視覺), 청각(聽覺), 후각(嗅覺), 미각(味覺), 촉각(觸覺) 즉 오관(五官)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과 의지를 공격하고 지배한다. 이 오관의 자극에 의하여 우리의 감각은 죄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아까 마약하는 예로 말하지 않았니. 바로 그것이 거듭난 사람에게도 구습을 좇도록 자극하고 요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그는 비생명 비존재로 죄의 욕망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p.131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24)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 육체의 감각 속에 구습의 경험 곧 죄의 경험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것은 물려받은 죄의 생명의 경험들이요 또 스스로 경험한 죄의 감각들의 욕망이기도 할 것이다. 죄의 존재와 죄의 생명은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아버지가 계속 표현하는 말로 한다면 비존재 비생명은 비존재 비생명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바울도 이런 경험에 대하여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있다.

로마서 7:14-21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p.132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로마서 7장은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여기 말한 사실이 중생하기 전의 경험이나, 중생한 후의 경험이나는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단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양쪽이 다 일리가 있으니까 논쟁이 되지 않겠니. 너희 아빠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야기에 대하여는 말할 처지가 못되고, 이 말씀 자체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 뿐이다. 자, 자세히 읽어봐라. 여기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했다. 이 육신이 무엇이나? 앞에서 들려준 죄의 인격을 가리키는 육신, 살크스냐? 아니면 몸의 재료를 뜻하는 살크스냐? 참 분별하기 힘들지? 얼핏 보기에는 죄의 인격을 가리키는 말 같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기의 육신이란 원어로도 살크스와는 다른 “살키노스( )”를 쓰고 있다. 이 말이 신약성경에 한 5회쯤 쓰인 것 같다. 고린도후서 3:3에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몸의 살을 뜻하는 말로 쓰인 것이 분명하지. 그리고 히브리서 7:16도 몸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 분명하다. 즉 몸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은 육체의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않았다고 하면서 쓴 말이거든. 고린도후 1:12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하면서 썼다. 이것도 단순히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쓴 것 같구나.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죄의 인격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고전 3:1에는 그리스도안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그러니까 아직 그

p.133 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중생의 경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여기 로마서 7:14에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살”로 이해해야 할까? 죄의 인격자 즉 아담 안에서 비존재 비생명이 된 자로 봐야 할까? 이 말도 살크스처럼 세가지 경우로 쓰인 것 같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말을 봐야 하겠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로 아노니”(18)여기는 살크스를 썼고, 그리고 이 “내 속”이 무엇인지를 23절에서 밝히고 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온다고 하였지. 그러니까 여기 육신은 곧 지체를 뜻하는 것인 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법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중생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앞에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지체 속에 있는 육신의 법은 감각의 쾌락을 맛보아 경험한 죄의 경험의 법인 것이다. 마약 먹은 사람의 경험에서 지적하였잖니. 그 감각의 경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마땅히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서 감각의 법을 따르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으며, 중생한 사람도 죄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경험의 자극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느끼며, 좌절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중생한 사람이라면

능히 이기고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문체는 조금 다르다. 아마 네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다르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다른 육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이 질문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구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러나 사실은 앞에서 대답을 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

p.134 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으면서 다르다. 참 엉터리 대답이지.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같은 점은 무엇인지 성경으로 살펴보자.

#### 4)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곧 살크스가 우리와 같은 점은 무엇인가?

이미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몸을 이룬 재료가 우리의 몸을 이룬 재료와 같다. 그 재료로서의 예수님의 육체는 범죄하기 전의 아담과 같은 성질의 것일 수는 없다. 사실 우리는 범죄하기 전의 아담의 육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지 않나. 그 때는 꼬집어도 아프지 않았는지, 사실은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것은 범죄한 후에 느끼는 살의 감각이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역시 칼에 찔려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지. 물론 그때에는 찔리는 일도 없었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도 않고, 일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수고라는 느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이런 육체의 수고로움이 감각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죄일까? 이런 느낌을 가진 육체를 죄의 육체라고 하고 죄의 경향이 있는 육체라고 할 수 있을까? 배고플 때 먹고 싶고, 피곤할 때 쉬고 싶고, 찔리면 아프게 느끼고, 육체의 이런 느낌이 죄 자체가 느끼게 하는 느낌일까? 아니지 결코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토록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따라다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사람이라는데 전혀 의심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

p.135 러 예수님이 하나님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요 10:33)한다고 트집을 잡은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하지 않나.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고 다만 사람처럼 나타나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생겨났단다. 그것을 가현설(假現說)이라고 하지. 그래서 사도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요일 4:2,3)고 분명히 선언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요일 5:5,6)라고 말하여 예수님이 살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 시장하셨고, 그래서 무엇을 잡수시기를 원하셨고 (마 21:18), 곤하셨고, 그래서 쉬기를 원하셨으며(요 4:6), 졸리셨지, 그러니까 주무신 것이 아니겠니(막 4:38). 이런 것은 모두 우리와 꼭 같은 살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진 보편적 생리적 욕구를 가지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였다. “사십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

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고 하여 시장하여 잡수시고자 하는 욕구를 유혹의 기회로 삼았다. 사실 시장해서 먹고 싶은 것이 죄의 욕망일 수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게 채울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

p.136 립적 존재가 되려는 것과 같은 것이란다. 이것은 비존재로 나아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죄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이런 욕구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에 단 한번도 동의하시지 않았다. 승리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죄성이 있고, 죄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받은 시험이 아니다. 아담이나 하와는 아무런 죄성이 없고 죄의 경향이 그들의 육신에 없었을 때에도 유혹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유혹에 떨어졌을 때 곧 죄가 되어 버렸지.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고 한 것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았다는 뜻이지 그의 육신에 죄성이 있어서 시험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 육체는 타락하기 전의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은 그런 육체가 아니고 타락하여 사천여년 동안 내려온 연약하여진 그런 살로 구성된 몸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육체에 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죄성이 있다는 말은, 타락하여 약하여진 상태의 육체라는 뜻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죄의 경향이 있는, 죄악적 욕망이 있는 육체라는 뜻으로 말한다면 성경과 일치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 곧 살크스를 가졌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성경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다고 말할 때에 그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더하여 놓거나 (히 4:15), 사망의 대속을 담당하셨다는 설명을 더하거나 (히 2:14,15), 죄를 정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었다거나

p.137 (롬 8:3)하는 말씀을 반드시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들은 그의 육신에 죄의 경향이나 죄성이 없는 것을 밝히는 말씀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몸을 구성하는 살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와 꼭 같지만 그의 생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와 다르다. 생명성 관련하여서는 우리와 다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하겠지?

아버지가 계속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죄의 본질 문제가 아니냐. 죄는 존재와 생명에 대한 문제라고 말이야. 그 존재와 생명이 아담과 관련된 상태에만 있으면 그는 죄인이요, 그가 죄인이면 그의 모든 것이 죄의 그것일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그가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상태의 생명과 존재이면 그의 모든 것이 생명과 존재 그 자체가 아니겠니. 그 자체가 생명이요 존재이면 그를 구성하는 모든 것도 생명과 존재에 속한 것이지, 생명과 존재가 아닌 다른 것에 속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존재는 아담과 상관 없는 생명과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과 존재를 이어 받은 우리와 다를 수 밖에 없지 않겠지. 마리아는 아담의 존재와 생명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것은 이유가 타당한 의문이다. 그래서 이미 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 말하였지. 씨앗과 밭의 관계라고 말이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도 여러번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

게,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러 가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셨다. 왜냐하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신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요

p.138 1:18). 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딤후 6:15,16)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때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살”을 가진 몸이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을 재료로하여 이 창조에 속한 물질로 구성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나셨을 때는 창조된 물질로 구성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창조된 물질로 구성된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상고나 없는 비존재 비생명이 된 것을 구원하여 다시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는 일에는, 창조된 물질로 몸을 이루어 그 몸으로 범죄한 인간의 죄와 죄성과 죄에 관계된 모든 것을 그 몸으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구주가 되실 하나님은 사람의 살로 몸을 이루어야만 하셨다.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하여 사람의 살을 입고 탄생하실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처녀는 물론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이 범죄한 후의 육신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의 범죄한 후의 사람의 육신 곧 “살크스”로 된 몸으로 탄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피곤했고, 아팠고, 시장했고, 즉 사람이 육체로 느끼는 모든 감각을 가지신 것이다. 그러나 그 육체가 죄는 아니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지 않았나. 죄의 영향으로 약하여진 육체이지 죄의 육체가 아니다. 단지 몸

p.139 의 재료로서의 육체라고 했을 때 그 육체에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죄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요한복음 8:23,2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3: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고린도전서 15:45,47-49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 위에서 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사람으로서 하늘

에서 나신 자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 분이시

p.140 지 흠에 속한 자와 같은 분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렇지 않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에 죄나 죄의 경향이냐, 죄인이 가진 죄성(罪性)이라는 뜻으로 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의 육신에 혹은 인성(人性)에 죄성이 있다는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이미 설명한 우리 사람들이 가진 같은 살을 재료로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살이 가진 감각들을 똑같이 가졌다는 뜻으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죄 자체와 관련된 말로 죄성이나 죄의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상의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잖나. 그리고 말이다, 만일 예수님의 육신이나 인성에 죄 자체와 관련된 죄성이나 죄의 경향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아담 안에서 비생명 비존재가 되어 죄성과 죄의 경향을 가진 우리의 인성을 대신 지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성과 죄의 경향을 스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류의 죄성과 그 경향을 대신 지겠니.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 인성에 죄성과 죄의 경향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죄성과 죄의 경향을 처리하기 전에 아담의 죄성과 죄의 경향을 대신 지고 처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자.

로마서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은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것이 무슨 말이냐? 만일 예수님의 육신에 이미 죄성이

p.141 있고 죄의 경향이 이미 있다면 어떻게 아담의 타락한 죄성과 죄의 경향을 그의 육신에 정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육신에 타락한 아담의, 타락한 죄성과 죄의 경향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과 그의 모든 타락한 그대로의 후손들의 죄와 죄성과 죄의 경향을 예수님의 육신에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육체에 우리의 죄를 지셨음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마 8:17)라는 말씀도 그의 육신에 우리의 연약을 담당시켰다는 말씀이지? 그런데 그가 스스로 죄의 육신을 가졌다면 타인의 죄와 연약성을 어떻게 그 육신으로 감당하겠니.

히브리서 2:14,15,17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업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육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여기는 혈육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혈육이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할 자녀들과 한 모양의 혈육이라고 하였다. 또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고도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에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냐고 생각하겠지. 내가 자꾸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죄성”이라는 단

p.142 어가 몸을 이루는 재료로서 “살”이 타락한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의 몸을 이루는 재료와 꼭 같은 “살”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타락한 아담의 타락한 후손과 똑같은 죄의 존재가 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사용하면 성경적이지 않다.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도 자세히 보아라. 예수님이 자녀와 같은 혈육에 속한 이유는 그 자녀들을 사망의 공포에서 놓아주기 위하여 그들의 사망을 예수님이 자기의 혈육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꼭 같은 혈육이 되었다고 하셨잖나. 그런데 그의 혈육에 죄성이 있으면 어떻게 자녀들의 죄로 인한 사망의 공포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 있겠니.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5-7).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이미 말한대로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몸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나. 이 예수님의 몸은 육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 육으로 이루어진 몸에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을 대신 지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대신 지기 위하여 그의 육신에는 죄가 없어야하고 인성에도 죄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옛날 이스라엘은 속죄를 위하여 짐승을 죽였을 때 그 피를 성소 안 휘장 앞에 뿌렸다. 이것은 그 휘장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었다(fp 4:6,17 ; 10:17,18 ; 6:30 참고).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은 본래 죄와 도무지 상

p.143 관이 없는 거룩한 것이었고 또 거룩한 것이어야만 하였다(출 30:23-29 ; 40:9). 그런데 성경은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 곧 살크스 <이 낱말은 살크스와 조금 다른 낱말이다. 그러나 꼭 같은 뜻이다.>라고 말한다(히 10:20).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거룩했으면 예수님의 육체도 거룩한 것이 아니겠니. 성경은 이처럼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육체에 죄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타락한 인성의 죄성과 죄의 경향을 자신이 지기 위하여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육신에는 죄의 죄성이나, 죄의 경향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는 말씀도 우리와 같은 살을 그 몸의 재료로 가지셔서 이미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은 사람의 감각적 욕구에 의하여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죄는 없으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이 아니겠니. 죄가 없다는 말은 그분의 모든 것에 죄와 관계된 것이 없다는 뜻이지. 그의 정신과 생명은 죄와 상관이 없으나 육신은 죄와 상관 있는 상태로 오셨다는 뜻이 f수가 없지 않나. 그가 죄와 상관 있는 것은 오직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일로 말미암아서만 일 뿐이다. 그 자신만으로는 그분의 존재 전체가 전혀 죄와 상관이 없고 또 없어야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느냐? 사람이 죽으면 왜 썩을까?  
죽었으니까 썩지요.

p.144 그렇구나. 참 우문에 현답이다. 그런데 말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과 썩는 문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고전 15:54)라고 하셨거든. 왜 썩지 않게 될까? 그것은 그 생명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생명이기 때문이 아니겠니? 그렇다면 썩는 것은 그 생명이 죽은 생명이요, 썩은 생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요 6:27)라고 하셨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산 썩은 생명을 가진 자의 육체는 썩을 수 밖에 없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육체는 썩지 않을 것이 아니겠니. 그 몸을 이루는 재료가 다 같은 살크스라도 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면 그 살크스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그래서 성경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엡 4:22)라고 하였지. 이런 사람만 그날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 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같이 죄와 상관없는 생명과 존재를 예수 안에서 얻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 자체요 그러므로 영생의 생명이지. 그러므로 그분 자신의 육체로서는 썩을 이유가 없지 않겠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살크스)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행 2:26,27)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살크스)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행 2:31,32)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4).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으로 (히 2:9) 죄 곧 비생명 비존재를 처리하시는

p.145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것이 그분 자신의 생명 자체를 멸절할 수는 없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당신 자신의 영원한 생명성에 의하여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딤후 1:10).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요 10:17,18)다.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죄 있는 생명의 육체와 다 같은 재료이지만 생명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육체와 다른 점이 아니겠니. 변화산의 경험도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지.

만일 예수님이 타락한 아담의 죄 있는 육신과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으나 그의 의지로 한번도 그 육신의 죄성이나 죄의 경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아담의 타락한 육신을 가진 우리도 만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죄성이나 죄의 경향에 동의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의 대속이 필요가 없겠지? 다만,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은 될지언정 구주는 될 수가 없고 굳이 구주라고 말한다면 성령이 구주가 되어야 하겠지. 예수님을 잘못 알면 다른 예수를 만들고 따라가게 된단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예수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p.146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 4:1,2)고 말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도 예수의 고난 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결과가 되어 죄를 그친 존재들이 되었으니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가 어떻게 다를까? 너희들이나 이 아버지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고난 받는 그 고난 안에서, 아담의 타락한 육체로서의 우리의 육체가 고난받은 것이 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육체가 되었다면 지금 육체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육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달라진 것은 없지.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 안에는 달라진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나? 사실 몸을 이루는 재료로서의 육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육체는 달라졌다. 생리적으로도 몸의 화학적 반응으로도 달라졌다. 우리의 감각의 세계도 달라졌다. 우리는 담배 연기를 아주 싫어하는 육체의 감각을 가지게 되었고, 죄된 쾌락을 싫어하는 육체의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베드로가 말한 육체는 세 번 다 물론 살크스이다.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과 꼭 같은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중생한 사람의 상태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인 사람과는 달랐다. 또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한 후손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생한 상태로 오신 그 같은 자리로 우리를 올려 놓으시고, 다시

p.147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해 놓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넉넉히 나처럼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결코 죄 짓지 않고 산 것처럼 너희들도 죄짓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능히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보증하신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후 1:21,22)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고후 5:4,5).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씀 안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한 이러한 의미가 다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과 속죄를 믿고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리워진 사람이고 예수님이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사신 것처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 수 있는 보증을 성령님께 받은 자가 된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씀에 담겨진 뜻이란다. 알겠느냐?

p.148

p.149

## 제 5 장 천국의 실상이신 예수님

자, 이제는 예수님의 다른 면을 이야기 해 보자. 예수님은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성경

에서 들어보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가자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천당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니, 이 문제를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천국이라는 말은 참으로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것을 알려면 성경을 떠나서는 바르게 알 수가 없다. 천국이 무엇이나? 사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천국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 것 같더라. 그러면 먼저 천국이라는 말부터 알아보자.

#### p.150 1) 천국이라는 말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우리가 가끔 착각에 빠지는데,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착각인 것 같애, 우리 나라 말로 번역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38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데 말이다. 이것이 거의 전부가 마태복음에만 있다. 마태복음 외에는 꼭 한번만 쓰였는데 디모데후서 4:18이다. 이상하지? 신약성경 전체에 천국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자주 나온다고 생각했을텐데,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할 정도로 마태복음 외에는 한 곳밖에 없으니 말이다.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의 독특한 표현이란다. 두가지 원어가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하나는 “헤 바실레이아( )”라는 말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다섯 번 “천국”이라고 번역되었단다(4:23; 9:3; 13:19,38; 24:14).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절수 외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말은 모두 이것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바실레이아는 단순히 왕국(王國) 곧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다. 신약성경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말은 대부분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다. 그러나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한자를 빌어쓰면 바로 “天國”이 되는 것이지.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쓰여졌지만,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단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나 편지서에서 천국에 대한 사상이 없느냐? 그렇지 않는 않다.

p.151 다른 곳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단다. 이것은 원어로 “헤 바실레이아 투 떼우( )”라는 말이지.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까?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마태만이 천국이라는 말을 쓴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거룩하기 때문에 입으로 부르지 않고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 )”라 불렀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의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늘”이라는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했다고 한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이미 이야기 하였지.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에게 거부감을 줄 말은 조심해서 썼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도록 “천국” 즉 “하늘 나라”로 썼다는 말이지.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었단다. 그러나 마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도록 기록해 놓았단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자. “예수께

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 23,24)고 하셨지. 여기 보니까, 23절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어려우니라”고 하시고 24절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보다 쉬

p.152 우니라”고 하셔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뜻을 분명히 밝혀 놓지 않았니.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이다. 천국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여 천국의 위치를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 지리적 위치보다는 주권과 성질을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생활 과목을 공부할 때 국가의 3대 요소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니. 그것은 국민, 국토, 주권이라고 하지. 이 세가지 요소는 국가를 이루는데 하나라도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국민이라고 생각되지? 국토가 없으면 국민만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가지 요소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겠지.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에게 통치를 받았다. 그때에도 2000만 국민이 있었고, 조선 8도의 국토가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되지 못했다. 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그렇지 주권이다.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러고나니까 국토도 국민도 다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았지. 이때 독립 운동가들은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이라고 세계에 전하면서 주권을 주장하였지. 국민도 빼앗기고 국토도 빼앗겼지만 남의 나라 한 도시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주권을 주장하여 독립된 나라라고 말하였다. 나라의 삼요소에서 주권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짐작이 가지? 천국에 대한 성경의 사상도 국민과 국토 이전에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p.153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를 뜻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말이다. 그 나라의 지리적 환경적 위치가 어디이든지 상관이 없다. 그 나라의 국민이 누가 되든지 염려가 없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시행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것이다. 만일 너희들의 생활에 한 점의 저항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어진다면 너희들은 천국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므로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도 잘 외우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마 6:9-13)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여기 “나라”가 “바실레이아”이다. 마태복음에서 다섯 번 천국이라고 번역도니 말이지. 그러므로 이 “나라”라는 말을 천국이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말이다. “천국이 임하옵시며”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 그러면 어떻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 2) 천국이 이루어짐

여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록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셨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p.154 생각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결코 없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단다. 이미 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말했지만, 루시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면 반역을 시도하지 않았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시행되는 일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시훤에게 충분히 말씀하셔서 루시훤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이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였을 때 뱀에게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묻지 않으신 것이지. 그러나 루시훤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하였고 마침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계 12:2-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 루시훤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와 같이 쫓겨난 후에야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었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계 12:10)라고 말씀하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이 없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루시훤가 쫓겨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사단

p.155 이 완전히 쫓겨날 때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냐. 요한 계시록 12장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것은 사단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쫓겨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내신 것처럼 마침내 땅에서도 쫓아 내실 것이다.

요한일서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14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 자체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이 아니냐. 예수님이 땅에서 마귀를 쫓아내어 없애버릴 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왔지만 이제 땅에서 쫓겨나게 될 때는 마귀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죽지 않고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사단을 없이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라 곧 천국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 3)인격 천국(人格 天國)

그런데 이 땅 전체에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p.156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하여 비존재 비생명이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인격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필요하단단.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각 개인의 심령속에서 마귀의 감화와 그 사상을 완전히 쫓아낼 때, 아니 마귀의 꾀임으로 비존재 비생명이 된 상태에서 물과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와 생명이 됨으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쫓겨날 때 그렇게 된 개인 개인들은 다 천국이 된 것이다. 이것을 나는 인격 천국(人格 天國)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격 천국이 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천국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가 인격 천국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지. 하나님의 뜻을 간단히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씀은 많으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의한 곳은 별로 없단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한 몇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지.

로마서 2: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p.157 데살로니가전서 4: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곳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 말씀 같아 보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 아니냐. 율법은 좁게는 십계명이지만 넓게는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7)라고 말씀하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전혀 방해하지 못하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십계명의 교훈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온전히 수행되는 것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성령의 주장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히 10:16)고 말씀하셨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은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후 3:3)고 하셨다. 이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인데, 구별되었다는 말이 보통 말이라면 거룩하다는 말은

종교적인 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인데, 성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벧후 1:4)하

p.158 는 자가 된 것을 뜻하는 것이지. 이런 경험에 이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마다 인격 천국을 이루게 된다.

성경은 사람을 나라 곧 “바실레이아”라고 부르고 있다.

계시록 1:5,6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5: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말한 “나라”는 “바실레이아”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 앞에서 “바실레이아” 곧 천국이 되도록 하셨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각 개인이 인격 천국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수 있게 하셨다. 비록 나라라는 말은 다르지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나라라는 말은 “에뜨노스”인데 왕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민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뜻하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당시로서는 역시 왕국을 뜻하는 말로 쓰였을 것이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상은 같은 것이다.

p.159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는 말씀이 아니냐. 인격 천국은 회개와 관련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하신 선언인데 이것은 침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마 3:2),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외쳤다(막 6:12; 마10:7). 거듭나는 것이 회개로 시작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회개할 것이 더 이상 없는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외침의 의미이다. 곧 인격 천국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지. 그리고 그 회개가 참으로 이루어진 것을 예식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침례이며, 그것은 천국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입적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지.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가르치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란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비존재 비생명이 되어 있는 자기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로, 죄가된 자신을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와 생명이 될 때, 이렇게 거듭난 존재와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인격 천국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인격 천국들이 모여 있으면 어떠하겠니? 그곳이야말로 분위기나 생활도 천국이 아니겠니!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시란다.

#### 4) 천국이신 예수님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예수그리스도 이시다.

p.16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질문 했을 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의 실상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17:20,21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답하신 현장을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 질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냐. 공관복음(共觀福音=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예수님을 헐뜯고, 책잡으며, 해롭게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천국이 예수님을 책잡고 헐뜯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말이 되지 않나?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해석하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그런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차적 이해이다. 즉 먼저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고 난 후에 이차적으로 마음에 있다고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아시

p.161 는 분이 아니냐. 그러므로 천국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나? 여기에 “너희 안에”라고 하신 “안”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면 어렵지 않다. 원어로 “엔토서( )”인데 “속”을 뜻하는 낱말이기보다는 “가운데”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이 질문하고 서 있는 이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임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만 천국은 이미 와서 너희들 중에 있다는 말씀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의 참 모습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의 참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인격과 생활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과연 예수님은 그러한 인격이시고 또 그렇게 사셨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또 자신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다. 구원 받아 인격 천국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무도 오해 할 수 없도록 분명히 실천하셨고 또한 드러내셨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자.

요한복음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p.162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요한복음 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자기 의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단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그의 생활 태도였고, 목표였고, 생활 철학이었다. 그래서 그 피땀 흐르는 겹세마네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기도하신 것이지. 예수께서 이렇게 사신 것은 참 존재와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비존재 비생명이 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이었단다.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실상이요 영생의 모습이였다. 아담이 완전한 중에서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은 연약하여진 육체로 구성된 몸을 가지고도 성공하시고 회복하셨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사신 것은 강요나 강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원하신 자신의 기쁜 뜻으로 하신 것이란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기쁘게 행하고자 하는 뜻이 되어 그렇기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와 행복이 있었다. 아마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다. “겹세마네

p.163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명한다. 즉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뜻과는 상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겹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진의를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자.

예수님의 이러한 생활 태도는 예수님의 의지 곧 그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爲人)도 그러하”(잠 23:7)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고 권한다.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나? 바울은 계속하여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

빌립보 2:6-8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흔히 겸손한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 이상이다.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린 삶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된 것을 보여주는 마음이

p.164 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격과 생활에 온전히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아니하냐. 곧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자기 자신에게 이룬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인격 천국을 이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단다.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자신의 인격이 천국이 되면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해석은 틀린 해석이 아니고 이차적인 해석이라고 아까 이야기 한 것이란다.

사실 이 천국 곧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격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지.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니. 그 상태는 곧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되어 실행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로봇처럼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기쁘게 동의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지. 의지가 있는 존재는 자기 의지를 강제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복종시키면 기쁨이 없단다.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평화의 의논을 하시고 오신 것이다(눅 6:13).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7)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즉 의논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p.165 세상에 사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을 어겼지. 그래서 죄가 되고 천국을 잃어버렸지. 만일 아담이 계속 그 언약 안에 충실했다면 그는 인격 천국이요, 동시에 그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 되었지. 그래서 이 천국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바실레이아)” (마 25:34)라고 하였단다.

어쨌든 하나님은 원래부터 천국을 환경이나 장소보다가 인격에다 중점을 두셨다. 사람 자체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의 실상으로 생활하지 못하면 환경을 아무리 좋게 해 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에게 천국이 되지 못한다. 결국 아담이 실패하니까 에덴 동산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잖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의 실상인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되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된 사람들만이 모이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만 생각하고 자기가 천국이 되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텅빈 욕심만 부리는 현실이 안타깝지 않니. 예수님이 천국의 실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 5) 영원한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인격 천국뿐이라면 조금은 섭섭하겠지. 그러면 이제 인격 천국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

p.166 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그의 관계가 대략 세가지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라이다.

예수님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받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성경의 말씀들은 구속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모든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모든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아야 할 아담의 후손들을 위함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셔서 아담의 후손들이 받아야 할 그 나라 곧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받으시는 나라는 마침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민이 된 성도들에게 영원히 주시고(단 7:18)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라가 있는 것이다.

다니엘 7:13,14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인자 같은 이 곧 예수께서 나라를 받으시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지. 9절부터 읽으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아오는 장소는 “심판을 베푸는 왕좌가 놓인”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하시기 위하여

p.167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거든(요 5:22).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이 심판하는 일도 행한다고 말한다. “네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신 17:8,9).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신 19:17,18)라는 말씀들은 제사장이 재판장의 임무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들이 아니냐. 이런 사상은 영원한 심판에서도 적용된다.

계시록 20:4-6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p.168 의 제사장이 되는 일ियो 그것이 곧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행사하는 일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아니냐. 이와 같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어 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시편 110-1-7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맹세 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너는 뿔기세택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과하실 것 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뿔기세택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말한 내용이 아니냐. 그런데 그 제사장은 열방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요 권능의 홀을 가지고 원수 중에서 다스리시는 왕이 시다.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동안 그것은 곧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다스림이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다. 즉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파된 복음을 통하여 드러내신 영원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는 일로 사람들은 심판이 되는 것이며, 받아들인 사람들은 원수의 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이 되고(골 1:13)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멸절될 것이니까 원수의 세계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니엘 7:13,

p.169 14에서 말하는 나라를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일의 진상이란다. 이렇게 하셔서 그의 성도로 판결이 되고 확정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인격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인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받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성도 곧 인격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기 위하여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둘째는 하나님께 바치는 나라이다.

왜 받은 나라를 도로 바치는가? 먼저 성경을 읽어보자.

고린도전서 15: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이 말씀은 부활과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그 후”라는 말은 “의인 부활이 있는 후”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는 그의 심판 사업이 끝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었을 때를 뜻한다. 그래서 사망과 함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할 것이다.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6). 그래서 심판을 위하여 원수 중에서 다스리든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심판이 종결되었고, 집행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란다.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 세상에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신천 신지 천국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p.170 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계 22:11,12). 예수께서 심판을 마치시는 때에 불의

한 자는 완전히 불의로 확정되고 의로운 자는 완전히 의로 확정되어 이제는 그 결과를 따라 집행될 것인데 비존재 비생명으로 확정된 모든 것들은 최후의 원수인 사망과 함께 영원한 불로 영원히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존재가 된 것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히 12:26-28)

셋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말한 중에 이미 이 이야기를 다한 것 같지만, 잠깐 다시 이야기를 하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쫓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구속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땅에서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졌다. 영원한 불에 타서 죽는 것뿐이다. 이미 이야기 한 대로 “마귀를 없이 하”실때가 된 것이다.

계시록 11:15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곧 “세상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신다. 영원한

p.171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원래 이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곧 인격 천국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마련된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남아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불에 불사르어진 이 지구를 수리하신다. 수리한다니까 말이 이상하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신다. 그 땅에 살 사람들이 새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땅을 새롭게 하셔야만 하고 그래야 죄와 죄의 흔적들이 다시 없는 세계를 영원히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 65:17,18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죄의 세상의 해되고 상한 모습들에 대한 말씀이지 구원받은 각 개인의 자기 의식에 대한 말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도 도시 계획으로 완전히 거리의 모습이 바뀐 곳에 가면 옛 모습이 기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계 21:1). “예수님은 친히 선포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21:5)고 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아니냐. 이 새로운 피조물이 살 세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예수

p.172 남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성경의 어떤 낱말들은 참 재미있게 선택된 것을 보는데 마

태복음 19:28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의 “새롭게 되어”가 “팔링게네시아( )”이거든, 이 말이 디도서 3:5에는 “중생”이라고 번역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을 “세상이 중생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인격 천국과 영원한 천국이 같은 차원의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연결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중생한 사람이 영원히 살 지구는 중생한 지구인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실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비존재 비생명이 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중생하여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존재와 생명들을 중생한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신 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이 영광의 천국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천국이 이 세상에 역사적 사건으로 임하게 될 것을 간단하지만 가장 명료하게 계시하여 준 것이 다니엘 2장의 내용이다.

다니엘 2장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히 알고 있지. 그러나 동화처럼 들었지. 그 계시적 실상에 대하여는 잘 모를는지 모르겠구나. 옳지, 바로 그 다니엘의 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지. 그 우상은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었지. 그리고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그 우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려 그 우상이 겨와 같이 부숴져서 바람에 불려 간 곳 없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지. 이 해석도 우리는 익숙히 알고 있다. 다니엘이 해석한대

p.173 로 금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요, 은은 페르샤요, 놋은 헬라요, 철은 로마이며, 그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그 열발가락과 함께, 게르만 민족 대 이동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 영토 안에 형성된 열 개의 유럽국가들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그 열국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둘 나라라는 것도 알지. 그런데 그 둘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우상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니. 그래서 그 돌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하였지. 이것은 천국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적 현장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계시이다. 다니엘서의 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성립되는 가를 가르쳐주는 계시이다. 그것은 바벨론, 페르샤, 헬라, 로마, 열 개의 유럽국가들이 역사적 진행에 의하여 역사적 현장에 건설되었던 국가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 현장에 건설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건설은 역사적 사건이며, 천국의 위치는 역사적 현장인 지구이며, 천국의 국민은 산 돌이신 예수께 연합하여 산 돌이 된 사람들이며(벧전 2:4,5),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의 연대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계시의 중심 사상이란다.

이제 이 천국이 이 땅에 건설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너희들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지, 인격 천국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생각만 하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 천국이 되어 천국의 실상이 되는 일에는 게으르다.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도록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

p.174 로 거듭나는 경험을 이루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인격에 이루고 이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꼭 같이 살아야 하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초청해야 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집에 귀한 손님을 초청하였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 우선 청소부터 하고 꽃도 꽃아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어느 집에 초청이 되어 갈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으나? 부산하게 갈 준비를 서두르고 집안은 나중에 손댈 생각으로 그냥 두고 가겠지. 손님을 맞이할 때처럼 청소와 집안 장치를 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니? 천국에 대하여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 덜 합당한 비유일까? 사람들이 천국에 초청되어 갈 생각만 급급하여 자기 집을 단장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서 천국 갈 날만 손꼽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보아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먼저 각 개인이 천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자신이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단장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순서이다. 알겠지?

예수님은 이런 천국의 인격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아담의 죄 즉 비존재 비생명이 되기로 자청하시고 사람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구속을 이루신 사건을 생각해 보자.

p.175

### 제6장 죄 자체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죄가 되다니? 말이 참 이상하지 않니? 그러나 이 사실은 아버지가 이야기 해오면서 계속적으로 말했을 것이다. 아담의 비존재 비생명을 대신 취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비존재 비생명이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죄가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냐. 왜냐하면 죄는 비생명 비존재이니까 말이다. 예수님이 그 자신으로는 존재와 생명 자체이지만 아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담의 자리를 대신 취하실 때에 그는 죄의 자리를 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신 것이다.

#### 1)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

p.176 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요단강으로 돌아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가 아니냐. 어떻게 세상 죄를 지실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진리를 배웠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 범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흠 없고 깨끗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소의 제사장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 그들의 손을 얹고 지은 죄를 고백하였다 (레 4:27, 28; 5:4,5). 그래서 의미상으로 사람이 지은 죄는 짐승에게로 옮겨갔다. 짐승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진 것이지.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고 그 죄를 확실히 고백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교훈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있었다. 이미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았니(창 3:21). 그때 양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로 옷을 지으셨다는 것도 이야기 하였지(계 13:8). 레위기에 기록된 사실을 적용시킨다면, 아담과 그의 아내도 그 양을 죽이기 전에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두 마리의 양을 죽였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죄인 각자가 자기를 위한 짐승을 준비하도록 가르치신 레위기 4장의 기록에 의하여 아담과 여자를 위하여 각각 한 마리의 양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속죄의 복음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기별을 받고 자기가 죽은 존재가 된 것을 확실히 시인하고 죄를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아마 아담이 이런 깨달

p.177 음을 자기 아내에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의 순리이겠지? 그래서 여자도 자기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최초의 범죄자가 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구주의 오심을 믿었을 것이다. 그런 사실이 첫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 지은 것으로 나타났거든, **가인**이라는 말은 구주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란다. 그래서 이 짐승은 범죄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그 후에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들은 그 제사 자체가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속할 것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도록 교훈하는 것이었던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29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양으로 또는 생축(牲畜) 즉 희생되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5:7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5: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3:8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함바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구역).

에베소서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

p.178 섰느니라.

그러므로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방법이 계시고 있단다. 로마서 5:14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아담의 대신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시다(고전 15:45).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고전 15:22)의 죄 곧 비존재 비생명을 대신 취하여 지시고 죽으심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지.

고린도후서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한 사람의 죽으심이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나. 예수님이 죄를 지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죄는 비존재 비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롬 6:23)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죄인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처럼 아담도 자기의 죄를 고하고 양을 죽였으며 하나님은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이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죄”가 단수(單數)이거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실제로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단수로 썼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들”이라고 쓴 곳도 여러 곳 있거든. 특히 편지서들은 복수(複數)로 죄들이라는 말이 여러번 쓰였다. 바울도 복수로 쓴곳이 있고 (롬 4:7; 7:5; 11:27; 고전 15:3; 갈 1:4; 3:22; 엡 2:1; 골 1:14),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1 외에는 전부 복수를 썼고, 요한

p.179 은 요한일서 1:9; 2:2,12; 3:5; 4:10등에 복수를 썼구나. 이 단수, 복수의 죄라는 말에 과연 어떤 특별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여러사람의 죄에 대하여 말할 때 복수를 쓴 곳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이런 구분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이미 계속해서 말해 온 대로 단수로 쓰인 죄 곧 세상 죄는 아담 안에서 비존재 비생명이 된 것을 지적하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을 가르키는 것이고, 복수로 쓰인 죄들은 비존재 비생명이 된 존재들이 생활로 나타내는 썩어져가는 구습들 곧 죽은 행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단수로 쓰인 죄는 죄의 나무를 뜻한다면 복수로 쓰인 죄는 그 죄나무에서 열리는 죄의 열매들을 뜻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구별은 절대적인 구별이 아니다. 그렇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와 그 본질적인 죄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죄를 구별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분의 희생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함께 비존재 비생명이 된 모든 인류의 죄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지, 그러므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고 한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죄를 다 지신 것이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본질적으로도 생활로도 죄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번 강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생명 비존재를 대신 취할 수 있으시고 동시에 그런 비존재 비생명들의 생산한 죄들도 대신 지실 수가 있으신 것이다. 예수

p.180 님은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비생명 비존재를 대신 하시고 그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결코 한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실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의 죄와 죄들을 져고, 마침내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무리의 죄를 실제로 친히 지심으로 태초에 아담에 의하여, 표상된 양에게 놓인 죄를 처리하시게 된 것이란다.

이사야 53:4-6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  
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시지 않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는 아직 우리 죄를 지신

p.181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나?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대속을 표상하는 제사에서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짐승이 아직 죄인의 죄를 대신 진 것이 아니잖나. 아직도 그 짐승은 흠없고 깨끗한 짐승이다. 그것이 양이든지 소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간에 흠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하였지 (레 1:3; 4:3; 창 8:20등).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으로는 결코 죄와 상관 없는 존재와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상이란다(벧전 1:19; 히 9:14; 요일 3:5; 벧전 2:22등). 그러나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짐승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성질 그대로 죽어 없어지게 되었지. 그래서 사실상 죄인이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요 짐승 대신 살아있는 죄인은 더 이상 죽을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단다. 이 짐승에게 일어난 이런 대속의 일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사 제도가 계속 가르쳐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아직 죄를 대신 지신 것이 아니며 아직 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말을 하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된 것 같구나. 그런데 양을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각 개인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그렇기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우리 각 개인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놓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야기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회개라고 한단다. 회개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하겠지. 이런 이야기를 잠깐 뒤로 미루고 예수님이 죄가 된 이야기를 먼저

p.182 해 보자.

## 2) 죄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말도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다. 그렇거든 하물며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말이 이상한 말로 들릴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미 여러번 말한대로 사실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셔서 처리되신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단다.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우리가 피차 이 문제에 대하여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엄청난 희생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지.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에 대하여 그 사실을 극명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지 않나. 예수님은 그 자신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알지도 못하셨다는 말은 죄에 대한 자의식도 없

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죄가 된 아담이 죄에서 놓여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을 아담과 함께 죄에서 놓여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은 없게 되었다. 만일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죄인이 있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충분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구라도 당한다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다 대속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

p.183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 곧 비존재 비생명이 무가 될 때에 그렇게 되는 사람 중 아무라도 아담을 원망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원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각각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죄로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대신 처리하여서 아담의 모든 후손을 죄 곧 비존재 비생명에서 해방하여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구속을 거절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여 죄의 실상인 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악인이 왜 멸절 되는 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다. 그러므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알겠니? 이 이야기는 악인들의 부활 문제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전에 아빠가 쓴 “구속의 과학(救贖의 科學)”에 잘 적어 두었지. 너희들 읽어보았니? 지금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예수님 이야기도 구속의 과학 책에 조금씩 이야기 하였던 것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셈이란다. 아마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를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죄를 처리했다는 것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21에 의하여 확실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죄가 되셨는가 알고 싶을 것이다. 과연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면 언제 죄가 되었을까?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죄가 되었을까? 그럴수가 없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나실바 **거룩한 자**”라고 불렀다. 만일 나시면서 죄가 되셨다면 이미 거룩한 자일 수가 없지 않니. 만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죄

p.184 인으로 사신 것이 된다. 그러나 그는 죄 의식도 없으셨다. 이미 앞에 설명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지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죄가 되실 수가 없지 않겠니.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세상에 오셨으나 아직은 준비된 양이지 죄가 된 양은 아니다. 아까 말한대로 죄인이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갈 때에 그 끌려가는 양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도록 준비된 양이고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양은 죄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는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한,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었으나 아직 죄를 지심으로 죄가 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비한 양을 “여호와 이레”(창 22:14)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에 이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말 가운데 예언한 말이다. 이삭이 묻기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 22:7,8)고 대답하였다. 아들의 질문에 괴로운 심정으로 대답한 아브라함의 말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준비해야 할 몫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할 몫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일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p.185 도 사람이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길을 사람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하게 된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기도 처리되고 자기 자신이 지은 죄도 처리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담을 대신하여 또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비감어린 유월절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지. 거기서 예수님은 홀로 피땀 흐르는 기도를 하셨다.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 아니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42). 이 말씀을 반복하여 세 번 기도하셨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피땀이 흘렀겠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조금 전에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지. 많은 사람들이 인성을 쓰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하고 몸서리쳐지는 일이라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면케 해주시기를 부르짖는 인성의 절규라고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였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광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아라. 그때 좌우 양편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니. 그들도 못박혔을 것이 아니냐. 그들의 고통은

p.186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자체의 고통을 견디는데 강도들만도 못했을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3일 이상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그 목숨이 사라져간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튿날은 유대인들의 큰 날이기 때문에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아둔 채로 지낼 수가 없어서 그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니(요 19:31). 그래서 군인들이 골고다로 가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들이 다리가 꺾임으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놓았을 때에 죽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았겠니. 그래서 다리를 꺾었지. 또 하루종일 달려서 기진한 상태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다면 다리를 꺾을 때 죽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 두 강도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이미 죽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요 19:31-33)였다. 이 말씀은 군병들이 십자가에 갔을 때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것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누구에게 더 컸을 것 같으냐? 강도들이 더 컸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른 죄수들처럼 오래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 한 순간이라도 같이 계시지

p.187 앞은 때가 없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눈 앞에 두게 되었다. 이 밤에 그분은 잡혀갈 것이요,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뜻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결코 한 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이었다. 그런데 아담의 죄를 지고 비존재 비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사람되어 오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예수님은 죄가 되는 것 곧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존재하기를 원하고 자율적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분리요 그것은 또한 비존재 비생명이 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없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존재 비생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존재와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비존재 비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리에 이른 것이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피땀이 흘렀고, 할만하지 거

p.188 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황을 피상적으로 관찰하고 육체가 되신 예수님이 인성의 고통을 느끼고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순전한 인간적 이해일 뿐이다. 그것도 강도들은 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버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 고통에다가 점수를 크게 더하여 겿세마네의 고통의 의미를 육체적 고통에 대한 고민으로 생각 하는 것은 사실 바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들은 그 고통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며 존재와 생명 자체이신 분께서 아담의 죄를 대신 지기로 자청하셔서 이제 막 비존재 비생명이 실현될 것을 강하게 느낄 때 오는 그 고통에 비하면 인성으로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실제로 느끼는 분리의 고통 때문에 그의 손발에 못이 박히는 아픔은 별로 느끼지도 못하셨을지도 모른다. 그는 줄곧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어 비존재 비생명이 되는 고통에 짓눌려 있었을 것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어머니의 봉양을 부탁하시고 한 강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그의 하시는 일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임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계시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 고통 중에도 그의 이성은 흐려지지 않았고 당신이 이루실 일을 결코 몽롱한 의식으로 그르치지 않으셨다.

“제 욕시로부터 온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

p.189 속하더니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45,46). 이 어두움이 무엇이나? 예수께서 사망에 삼키는 것을 나타내는 흑암이다. 죄 곧 비존재 비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선언하는 어두움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거절하므로 죄가된 사실을 답답하고 불유쾌하게 생각하신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며 그것은 흑암이요 완전한 사망이라는 것을 우주 앞에 드러내신 것이다. 어찌면 흑암의 권세자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자기의 권세아래 잡아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사단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사건인 줄을 사단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애.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곧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시”(히 2:14)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지 않느냐(계 12:9).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므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사망으로 못박은 것이 되었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곧 비존재 비생명이 처리되는 것이며, 사망이 사망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은 것은 시편의 예언을 이루려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바로 죄가 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처절하게 외치신 것이다. 흑암과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이 인간의 없어질 것을 대신하여 없어지는 순간을 우주에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롬 5:21). “저는 사망

p.190 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딤후 1:10)신 것이다.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 사건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야만 생명과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지만,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히 2:15)게 된 것은 확실하지 않나.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사망도 없어지고 말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시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히 9:28)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히 10:12).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단 9:27)셨다. 이후로는 다시 짐승을 죽여 속죄제를 드려야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다니엘 9장의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적그리스도의 행사에 적용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다니엘 9장 24-27의 말씀을 오해한데서 나온 것일 뿐이다. 여기 “금지하다”는 말은 원어로 “샤바트”거든, 이 말은 “안식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위하여 드리던 모든 동물 제사에서 쉬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지. 이제 죄는 완전히 처리되었다.

### 3) 자기 죄로 죽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고 죄는 완전히 처리 되었다고 아빠는 말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여전

p.191 히 죄가 있고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 물론 지금 내가 말하는 죄 곧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죄는 도덕적 부패를 말한다. 이미 공부한 대로 이 도덕적 부패는 비존재 비생명들이 생활로 생산하는 죽은 행실들이지.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는데 왜 비존재와 비생명이 아직도 있으며 그들의 죽은 행실이 계속되어지느냐는 것으 의문이 될 수가 있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신 것과 그 처리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뜻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한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자세히 설명하였지. 이 세상에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장래에 살게 될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아담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비존재 비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비존재 비생명이 되고 말았지. 이 비존재 비생명은 그 결국이 실제로 없어지는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없어지는 때가 유예(猶豫)된 것이란다. 그래서 그 유예된 기간 동안 비존재 비생명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이 세상을 비존재 비생명으로 가득 채우게 된 것이며, 그들이 곧 죄요 그래서 죄를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들 곧 비존재들인 사람이 죄요, 그 죄들의 비생명적 삶이 또한 모든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죄의 행위가 되어 역사의 흐름을 따라 도도한 강이 되어 오늘날까지

p.192 이른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데로 세상에는 걸잡을 수 없는 죄의 급류가 흘러가고 있으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전에는 죄라고 생각한 것들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 사람들의 비생명적 감각을 자극하고 있지 않느냐.

아직 세상이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비존재 비생명의 상태를 처리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상태를 없애버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은 비존재 비생명이 아니게 되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였다. 이것을 복음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였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근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비생명 비존재인 죄인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갚았음으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완전히 용서하고 자유케 한다는 선포라는 말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아담 안에서 죽은 비존재 비생명은 없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와 생명이 되며, 개인적 도덕적 죄에 대한 용서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도록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생활 곧 죽은 행실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되는 것을 회개하고 중생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 p.193 (1) 회개와 중생

아버지가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두가지 면으로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기억나니? 즉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비존재 비생명과 상관이 없으시니 근본적으로 죄가 없고, 또 세상에 사시는 동안 단 한번도 도덕적으로든지, 율법적으로든지, 결코 죄를 지은 일이 없으시니 자기가 지은 죄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대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이 두가지 면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는 두가지 국면이 있다는 말이다. 하나는 아담의 생명으로 났음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대로 있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그런 죽은 존재로 생활하면서 죄된 자기가 생산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첫째 국면이다. 나는 이것을 목욕하는 회개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발씻는 회개는 목욕하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죄의 공격을 미쳐 막아내지 못하고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는 회개이다. 이런 두가지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구속의 과학에 자세히 썼다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하였지. 그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니. 그러니까 놀란 베드로가 머리와 몸도 씻겨주기를 요청하였지.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요 13:10)고 하셨지. 여기에서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이 나왔지. 그래서 목욕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p.194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있게 하신대로만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과 존재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고 의와 생명의 나무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전혀 다른 생명 다른 인격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알아보지도 못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니?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게 되면 회개하기 전의 사람과 회개한 후의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지. 그렇다면 전혀 다르게 새로 만든 것이지, 회개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선언되었지만 그 사람의 외모나 살아온 인격의 과거나 다 연결되어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식되고 자신의 의식도 여전히 연결되고 있다. 다만 그의 생명의 기능이, 뇌의 기능이 비존재적 비생명적 기능에서 생명적 존재적 기능으로 바뀐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새로 빚은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며 그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중생은 먼저 그 사람이 인격과 의식을 지닌채로 다른 생명 다른 정신이 되는 것 즉 죄의 생명 죄의 정신이 의의 생명 의의 정신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개하고 중생한 그 사람의 인격의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김 명호는 여전히 김 명호인데 목욕하는 회개를 하기 전의 김 명호가 아니고 김 은규는 여전히 김 은규인데 목욕하는 회개를 하기 전의 김 은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의 생명의 근원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달라졌고 가치관 인생관 선악관 도덕관 취미와 기호 등등이

p.195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다. 어디 너희들 그렇기 된 것 같으니?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생은 그 생각의 경향이 예수님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바뀐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고, 그가 생

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활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롬 8:5-9 참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실 때 바로 그와 같이 사셔서 중생한 생명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 하였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란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고백하였다. 중생한 사람의 생활 전체를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냐. 그러므로 당연히 죄의 생활은 나타날 수가 없게된 것이지 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 탄생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맨 먼저 이야기 해준 내용이 아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 1:12,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일서 3: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p.196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5:18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들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한 내용들이지. 이 말씀들이 당연한 것은 죄는 비존재 비생명의 산물이니 존재와 생명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와 중생을 한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들의 생리가, 거듭난 생명의 본능이 죄와는 전혀 상관 없기 때문이지, 포도나무가 어찌 쫄래 열매를 맺겠나. 이미 이야기 한대로 거듭난 성질은 이와 같이 된 성질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생활이 정확히 이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기를 혐오하기까지 한다. 그런 경험들이 너희들에게도 있지?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비성경적인 말이거든. 그런데 먼저 이야기 하면 이런 경험에 대하여 안타까와 하고 후회하고 가슴아파하며 다시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발췌는 회개이다.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라(눅 15:11-32). 그가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버린 상태를 “죽은 상태” “잃은 상태”로 표현하였지.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을 돌아와서 아버지의 영접을 받은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눅15:

p.197 24)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이것이 목욕하는 회개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 이 옷을 입히기 전에 목욕부터 시켰겠지. 성경에 목욕시켰다는 말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 상황이 틀림없이 목욕을 시켰을 것이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내다가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어찌 목욕을 시키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제는 부자집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후에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돌아오기 전의 생활 태도를 계속 가졌을까? 그렇지 않으면 집 나가기 전의 정신을 계속 가졌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아마 틀림 없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까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니?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즐겁게 수행했을 것이고, 효성스럽고 충성스런 아들의 삶을 계속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이것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이다. 탕자의 돌아온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중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적(寫實的)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징계와 꾸지람이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2:5-11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

p.198 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 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하시니라.

왜 꾸지람을 하니? 너희들 왜 가끔 아버지께 꾸지람을 듣니? 잘못하니까 그렇지. 사람 아버지는 잘못 판단하여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꾸지람을 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스럽게 생활하는 동안 아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에서 실수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가 알면서 실수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모르고 실수할 때도 있을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때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언제나 용서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발씻을 물을 준비해 두시고 계신다. 우리가 발을 내밀어 주님의 손에 의하여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그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도덕적인 범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마찬가지란다. 아담이 범한 같은 죄를 자기 개인이 범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지. 그러나 그는 그 허물이 깨달아질 때에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발을 내어밀고 씻어주기를 요청한다. 물론 예수님은 결코 물리침 없이 당장 씻어 주시지.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

p.199 이 중생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한 그는 그 실수들로 인하여 아들의 자리에서 내어쫓기지 않는다. 만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간 것일 뿐인데, 그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것과 같은 현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쫓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꾸지람을 하신다. 만일 내어쫓을 것 같으면 징계고 꾸지람이고 필요 없잖나. 내어쫓는 것으

로 끝나는데 말이다. 우리가 꾸지람을 들을 수 있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일 뿐이다. 이 꾸지람과 징계는 신앙 양심의 가책으로도 올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올 수도 있고 설교나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도 사회 생활 중에서도 올 수가 있다. 우리가 범사에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아들이라면, 실수가 있을 때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깨닫도록 하시고 징계와 권면과 꾸지람으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요한계시록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일서 2:1,2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잠언 21: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p.200 시편 37:23,24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에베소서 4:30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들은 다 중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냐. 의인 곧 중생하여 죄와 상관 없이 된 사람들, 비존재 비생명에서 생명과 존재가 된 사람들도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일곱 번까지도 넘어질 수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넘어져 있는 것이 그들의 성질이 아니요 일어나 있는 것이 그들의 성질인 것이다.

회개와 중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아직도 유예된 기간 동안 사단이 주장하는 사단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지(敵地)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사단을 이 땅에서 완전히 죽여서 떨하고 이 세상을 신천신지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적지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상함과 해됨이 충만한 곳이 아니냐. 조금만 숨을 잘못 쉬어도 상처를 입는 곳이 이 세상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 사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영적 생활에서도 그렇다. 사단의 왕국에서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 거치는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해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끔 넘어지는데 심하면 일곱 번까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넘어진대로 있지는 않는다. 일어나 있는 것

p.201 이 그들의 거듭난 본성이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그렇게 걸려서 넘어졌을 때를 본질적 의미로 죄인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넘어졌을 뿐인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용서해 놓고 계신다. 우리가 실수하여 허물어진 순간 순간에 그 용서를 내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중생한 사람은 결코 넘어진 채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순간 순간 적용하는 일은 언제든지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계 7:14)한 자들이라고 하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계 22:14)있다고 한 자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이 아빠나 돌아온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겠지. 결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겠지. 그런데 자기 죄로 죽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거절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 보자.

## (2) 자기 죄로 죽는 사람들

예수님은 아담의 자리를 대신하여, 아담이 죽을 것을 죽으셨으니 결과적으로 아담은 안죽어도 되게 되었지. 그와 똑같이 아담 안에서 비존재 비생명이 되어 죽은 아담의 모든 후손도 죽을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니? 그런데 아담도 죽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두가지로 취급하고 있단다. 정말 죽는 것과 잠시 죽는 것이다. 이런 구별은 참으로 이상한 구별 같지? 다시 설명하면 지금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를 선고할 때까지 잠시 자고 있는 것을 뜻할 뿐인 것이다. 그래서

p.202 성경은 이런 죽음을 잔다고 말하지.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자는 상태임을 모르니까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선언한 정녕 죽으리라는 죽음은 정말 죽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죽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합당하고 생각하는 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 죽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사람들 눈에만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 기간을 가지는 것 뿐이란다. 은규는 컴퓨터를 잘 쓰지않니. 그런데 네가 컴퓨터에 입력을 끝내고 전원을 끄면 모니터에 나타난 글자나 도표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지. 그러나 그것을 세이브해 두었다면 모니터 화면에는 없어졌지만 컴퓨터 디스크에 보관되어 있지 않니. 그랬다가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전기 스위치를 켜고 컴퓨터를 작동하면 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던 재료가 이 주루루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지 않니. 지금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만 모니터에서 글자나 도표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과 생활 전체는 하나님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의지와 의식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은 때가 되면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의지로 결정하여 행한 일들의 결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결코 불공평하거나 독재거나 폭력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성경이 현세의 생명이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한 말씀들을 찾아보자

요한복음 11:11-14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p.203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 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도행전 7:59,60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외에도 친구약 성경에 지금 죽는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곳이 아주 많다. 그래서 그들이 깰날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시는가? 사람이나 우주의 다른 인격적 존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좀 잘못된 평가를 한다고 하나님의 권위와 명성에 무슨 흠이 같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도 참 찜찜하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이것은 오해이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악선전을 믿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다. 지금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p.204 조금이나마 없애보자는데도 뜻이 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이런 오해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너무나 엄청난 사랑에 감격과 찬양이 있을 뿐이다. 자,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일부러 부활을 시키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니까 깰때가 되면 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우는 것 뿐이란단다. 그런데 그 때는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이다. 너희들이 깊이 잠들어 자고 있는데 아빠가 애들을 깨울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깨울 것이 아니냐. 그때 너희들이 죽지 않았으면 깨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빠가 누나를 깨우고 또 은규를 깨우려고 하다가 지난밤 늦게 잔 것을 생각하고 한시간 더 자게 두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면 한 시간 후에 깨울 수 있지 않나. 그것은 깨우는 자의 뜻이다. 다만 죽지 않았으면 그 때 깰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우리들이 관찰하는대로 죽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글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 메모리 되어 있단다. 이런 메모리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는 여러곳에 나타나 있다.

요한계시록 20:12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니엘 7:10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말라기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p.205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사야 65:6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요한계시록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 리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눅 20:38)고 하신 것이다. 다만 자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울 때 그 깨우는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28,29 이를 기이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5:22-24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때라.

p.206 요한계시록 20:4,5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하여 부활하는 자들의 부활을 첫째부활이라고 했으니 천년 후에 부활하는 자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일 것이 틀림없지. 그리고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것인데 요한복음 5:29의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라는 말과 똑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란 곧 정죄(定罪)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이 행한대로 갚음을 받게 될 부활이지. 그런대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대속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그의 중생하게 하심을 입어 중생한 생명의 성질대로 산 사람들이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음으로 거절한 사람들이다. 아빠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아직도 여전히 죄가 있고 죽은 자들의 죽은 행실이 계속되고 있는지 의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내가 새삼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대답이 이미 나왔지? 즉 예수님의 대속을 거절하고 아직도 스스로 선택한 비존재와 비생명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비생명 비존재를 처리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비생명 비존재가 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해방하셨으나(계 1:5; 롬 8:2), 이것을 거절한 아담의 후손들 개개인은 그 스스로가 비생명 비존재로 있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자기도 완전히 모르면서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창조와 존재하게 하심을 믿기를 거절했을 것이다. 그

p.207 떨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랬으니까 이 개개인이 결정한 비존재 비생명이 두가지 방면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비존재 비생명들이 있으며 그들이 생활로 생산하는 죽은 행실들인 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처리하는 두가지 방면은, 전도와 멸망이다. 전도는 비생명 비존재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회개케 하여 생명과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케 함으로 비생명 비존재를 없애는 것이고, 멸망은 전도를 계속 거절하여 끝까지 비생명 비존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마침내 영원히 그 결정대로 무가 되도록 처리하여 없애는 것인데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활을 하는 이유는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이 예수 안에서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래서 둘째 부활을 하는 것이지.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활할 것 즉 잠에서 깰 것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 즉 잠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사실을 결단코 기이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며 감사한 것으로 기

빠하지만,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도 안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겠니. 즉 그들이 죽었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심판 곧 정죄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할 수밖에 없**

p.208 **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하는 때는 깨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고전 15:22-24).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은 예수님이 다 완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된 자는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영향으로 약하여진 육체가 피곤하여 잠들 수 밖에 없게 되었을 때 깊은 잠에 들었다가, 그러나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울 때 깨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잠들기 전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전혀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 안에서 다시 찾아진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거절한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택을 스스로 거절하는 결정을 하여 비존재 비생명이 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속의 길을 마련하셨지만 이제 이 대속의 길을 스스로 거절하여 각자 각자가 비존재 비생명이 되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결정을 집행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욱을 보임이라”(히 6:4-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26,27)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를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영원히 죽는다. 비존재 비생명의 당연한 결과인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p.209 즉 전혀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이다. 그때는 사단 마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히 2:14). 그런데 그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불로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불로 정결케 하는 것이지. 그것을 불못이라고 하고 지옥이라 한다. 그리고 의식있는 생명체는 뜨거운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탈 것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밤낮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탈 것이 다 타서 재가 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정결케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신 천신지를 창조하신단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이 땅위에 건설되지.

이런 사실로 악인들은 자기가 죽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실에 의하여 영원히 죽는 것이지. 하나님이 형벌로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죽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가장 행복한 대접이다. 만일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영원한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시지 않고 그들의 결정대로 영원히 없도록 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것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한단다. 성경에 형벌이라고 한 사건까지도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나! 사실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따로 이야기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잠깐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구나. 너희들이 구속의 과학을 읽어서 여기서 이야기 못한 부분을 찾아 알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사상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자.

요한계시록 14:10,11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

p.210 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하다.

요한계시록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다서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의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말씀들은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지. 영원한 불의 형벌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니. 그것은 재가 되도록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귀까지도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서 재가 될 때까지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이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없이 될 것이며**(히 2:14).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뎌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6),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계 20:14).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에 타서 완전히 재가 되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 사망의 고통인 것이다. 그 고통이 어떠하였겠니.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 곧 비존재 비생명을 처리하셨

p.211 기 때문에 그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존재와 생명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 안에 있기를 거절한 그 결정으로 하여 비존재 비생명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곧 영원한 무(無)라는 말이다. 이런 모든 결정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가 되셨고 죽으신 것이다. 물론 그 후에 부활도 하셨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말라기 4:1,3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시편37: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하다.**

베드로후서 3:12,13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p.213

## 제7장

### 의가 되신 예수님

어떻니,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놀랍지 않니? 우리는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지극히 적은 부분만 이해할 뿐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안다해도 “부분적으로”(고전 13:12)알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섭리에 대하여 더더욱 그렇지.

예수님은 이와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죄가 되시어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 그래서 죄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창조도 그렇고 만물이 유지되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7),

p.214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골 3:11)고 말한다. 사망도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전 1:30).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처리되었으니 예수님이 의와 구속이 되지 아니하시면 누가 구속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 나타나셔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망을 처리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셔야만 한다(딤후 1:10).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하신 것이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게 되었지. 그리고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지만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나.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4). 그래서 그 자신의 의로우심에 의하여 그는 부활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고전 15:20,21).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실제적인 시작이지. 그는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이며(고전 15:45)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모든 중생한 생명의 시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1) 율법의 마침이 되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말씀인가? 왜 율법의 마

p.215 침이 되셨는가?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을 골고루 찾아 보여야 한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기 저기서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 같은 말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들만 골라서 논리를 전개시키면 완전히 다른 사상들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과 지식에 “시온의 대로”(시 84:5)를 따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

이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7-19)는 성경의 간구가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로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변하느니라”(고전 2:13).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말씀이 인도하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 성경의 진리를 연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을 얻어놓고 성경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사용한다고 다 성경적인가 하면 얼마든지 그렇

p.216 지 앓을 수도 있거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하였지(마 4:5,6). 성경을 사용하였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한다면 속을 수도 있다. 성경을 연구하되 성경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한참 말해야 할 것이니까 이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훗날 이야기 할 시간이 있으면 다시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지.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도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된다. 먼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로마서 10:1-4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지. 그런데 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느냐? 그렇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면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겠지?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에 한 말이 기억나지? 마태복음 3:15 말씀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p.217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으냐? 이것은 침례받으시는 것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말씀이 아니냐? 침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의를 이루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도 그때 잠깐했지.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이다. 침례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표상하는 예식이라고 말하였지.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좋겠다.

로마서 6:1-1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p.218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앎이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저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지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으심 곧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는 말씀에 맞추어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여 의를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이지. 그 의를 이루는 방법은 침례로 표상된 것이 아니냐. 즉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지낸바 되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었다는 말이다. 결국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에 의하여 날마다, 해마다 짐승으로 속죄제와 기타 제사들을 드리는 것은 죄인들의 죄를 짐승들이 대속하여 죄인인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사 단번에 이루어 율법이 가르쳐 온, 속죄를

p.219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 선다는 사실을 성취시켰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도 명백히 계시하여 놓았다.

누가복음 24:44-49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히브리서 10: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9:24-26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

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돌아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  
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  
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p.220

라.

히브리서 10:10-14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하지 못하거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  
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  
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 읽은 성경절들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나. 그것은 율법이  
가르친 속죄의 법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대속할 것을 가르치는 그림자였는데 이제 예  
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말  
이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  
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

p.221

**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과 의를 이룬다는 말은 같은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이  
런 일로 하여 세상에서는 더 이상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봉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성소에  
서 하는 제사장의 봉사는 속죄를 위한 봉사였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에 다 이루어버린 속죄  
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인  
간 제사장들로부터 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다. 세상에 있는 성소와 관련되고 그 성  
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은 끝난 것이다. 예수 안에서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의가 되셨기 때문이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예  
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마침  
이 되었다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다.

자, 이처럼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아까 탕자 이야기를 했지. 돌아온 탕자  
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충실하게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최소한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믿는 모든 자  
에게 의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수 있는 사람들이란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의가 되었으며 동시에

p.222 그를 믿는 자의 의가 되는지 이야기 해보자.

## 2)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아버지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과 의를 이룬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설명하였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같은 일이나 하는 것도 연구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의를 이룬다는 말은 속죄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란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 한대로 속죄 제사는 죄인이 짐승을 끌고 성소 또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끌고 간 짐승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한 다음 그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함으로 죄인이 자기 죄로 죽을 그 생명을 대신하여 짐승이 생명을 잃었음을 고하고, 그 죄인에게는 사죄되었음을 선언하여 그 죄에 대하여는 무죄이며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죄는 성소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성소 봉사를 통하지 않고 속죄가 선언 될 수가 없었다. 성소 제도가 주어지기 전에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성소 제도가 주어지고 제사장이 임명된 후부터는 제사장이 행하는 성소 봉사를 통하여서만 속죄의 봉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금 전에 읽어본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속죄 봉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속죄 봉사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봉사가 성소 봉사의 실체이고 옛날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는 예수님이 봉사하실 일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말이지.

## p.223 (1) 모형적 성소 봉사의 속죄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인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서 양을 잡기만 해서 안되었다. 그 죽은 양의 피를 성소 안의, 성소와지성소를 구분한 휘장 앞에 뿌려야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는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그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였지.

너희들이 성소 구조와 그 봉사에 대하여는 많이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땠니? 웬만 큼은 안다고? 그렇겠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하면, 성소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불렀다. 그것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뜰은 길이가 100규빗이요 나비가 50규빗이었다. 그리고 동쪽에는 입구가 있고 그 출입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성소에 들어가는 문까지는 50규빗의 간격이 있고, 성소의 출입문도 동쪽으로 나 있었다. 그 문을 들어서서 20규빗이 되는 곳에 휘장을 드리워 칸을 막았는데 그 휘장 뒤편이 바로 지성소이다. 그러니까 성소의 길이가 20규빗이라는 말이지. 그리고 지성소의 길이는 10규빗이다. 그러면, 성소, 지성소를 합한 길이는 30규빗이 되지. 그러니까 성소는 뜰의 출입문에서 50규빗 되는 지점에서 30규빗 길이로 세워졌다는 말이다. 그러면 100규빗되는 뜰의 뒤편은 20규빗이 남는 것이지. 성소의 구조를 몰라도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알아두어서 해될 것은 더욱 없지. 그리고 성소의 나비는 10규빗이다. 그러면 지성소는 길이와 나비가 다 10규빗이 되고, 성소의 천정까지의 높이도 10규빗이니까 지성소는 정육면체의 방이 되는 것이지. 규빗은 보통 규빗과 성소 규빗이 있는데 보통 규빗은 45cm정도이고 성소 규빗은 52cm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성소 뜰의 길이는 52m이고 나비는

26m인 셈이지. 그리고 성소는 15.6m정

p.224 도의 길이에 5.2m정도의 나비이지.

성소 뜰에서 들어서면 돛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죽은 짐승들을 불태워 번제로 드렸고 그 다음에는 물통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드나들며 몸을 씻는 기구였다. 성소에 들어가면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그 맞은 편 남쪽에는 일곱등잔이 있는 순금 등대가 있다. 그리고 지성소를 구별한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다. 그리고 휘장 뒤쪽은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법궤가 있다.

(성소그림)

이런 구조로 된 성소에서 제사장은 매일 매일 속죄제와 기타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었다. 아마도 주 봉사(主奉仕)는 속죄하는 봉사가 아니었겠니.

자, 이제 상상해 보자. 한 사람이 속죄를 위하여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왔다. 그는 제사장의 앞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였다. 그리고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냥 돌아간다면 속죄가 이루어질까? 안된다. 거기서 그치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사장은 그 죽은 양의 피를 받아 가지고 반드시 성소 안에 들

p.225 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려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죄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야 하였다.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레 4:20)고 기록되어있지 않나. 물론 레위기 4장에 나타난 기록으로는 모든 속죄제 희생의 피를 반드시 휘장앞에 뿌린 것은 아니고 번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레위기 6:24-30에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즉 속죄제를 드리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가서 피를 휘장 앞에 뿌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드린 제사의 제물은 완전히 불살라야 하였다. 그러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제단 뿔에 바른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을 표상하였다(레 10:16-18). 그런데 아마도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봉사를 더 많이 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너희들도 생각해 보아라. 날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의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다 먹었겠니. 그러니까 피를 성소에 들어서 뿌리고 제물을 불사르는 봉사를 많이 하였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니.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그 죄인의 죄를 사했다고 선언하기 위하여는 피를 성소에 들여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짐승을 죽여서 흘린 피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뿌린 피가 아니냐? 이와 같은 유형은 유월절 양의 규례에도 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잡았어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으면 그 양을 잡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흘린 피와 뿌린 피**는 다 같이 중요하다. 하나라도 없으면 속죄가 안된

p.226 다. 흘린 피가 없으면 뿌릴 피가 없고 뿌린 피가 없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 피를 휘장 앞에 뿌리기 위하여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며 죄인은 바깥뜰에서 있다. 그때죄인은 제사장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 말로 자기의 죄가 속하여진다는 확실한 증거요 의를 이루는 분명한 선언이 아니냐. 이 일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니. 자꾸 반복하는 소리지만 제

사장이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속죄도 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실, 모형과 그림자의 봉사모습이 아니냐. 그렇다면 속죄 봉사의 실제요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봉사에도 성소와 피와 제사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나? 만일 실제인 예수님의 봉사에서 성소나, 제사장이나, 피가 없다면, 모형과 그림자에도 있을 수 없고, 모형과 그림자에 성소와 제사장과 흘린 피와 뿌린 피가 있으면, 원형에도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물론 확실히 그렇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에도 흘린 피와 성소와 제사장과 뿌린 피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또 있다.

## (2)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사시면 어떠했을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활하여 사시는 그 영생의 모습을 직접 보기 때문이지. 어찌 그럴듯해? 아빠 생각에도 그럴것 같애.

p.227 그런데 왜 승천하셨을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예수님의 원래 자리니까 가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렇더라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보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단순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 그리고 그렇게 단순히 믿고 사는 믿음이 더 순수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고 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한 것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분부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승천하셔야만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셔야 하기 때문이란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모든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셔야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나.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셔야만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흘린 피를 가지고 **뿌린 피**가 되게 하셔야 한단다. 그런 봉사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선언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히 12:24)인 것이다. 아벨의 피는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피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신원해 주기를 호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 4:

p.228 10)고 말씀하셨단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도록 말하는 피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호소를 **뿌린 피**가 하는 것이다. 이 피의 탄원에 의하여, 옛날 이스라엘의 속죄 봉사에서나 지금이나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이시다. 예수님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를 선언하신다는 말이다. 이런 봉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단다. 이제 하나씩 찾아봐야 하겠지.

먼저, 만일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세상에 계시면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한

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으면 사죄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을 위하여 뿌려지지 않으며,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지 않겠니. 예수님의 피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셔야 하고, 그렇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봉사할 성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8: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승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히 8:5), 율법을 좇아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속죄의 봉사를 할 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린 것처럼, 예수님도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분이 올라간 하늘에 성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성소가 있

p.229 고 예수님은 그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히브리서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히브리서 8:1,2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지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9:11,12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연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신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같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땅에서 율법이 가르쳐 주는대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케하는 것과 같은 것

p.230 이며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직분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어 죽으셨느니라”(갈 2:21)고 단언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그들이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렸을지라도 그것은 그 짐승의 죽음과 그 피가 죄인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차 구주가 오셔서 이와 같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나타낸 것 뿐이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런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자체가 그 제사드린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인 줄 생각했다.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대속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율법이 표상하던 실상으로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데, 땅에서 사람들이 그 폐지되고 소용없게 된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며 할례를 행하면 예수님의 속죄 희생과 봉사를 믿지 않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그 율법의 행위로 결단코 의를 이룰 수도 없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사정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속죄의 봉사를 이루사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속죄를 위하여 행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p.231 주님이 이루신 모든 속죄와 봉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겠니?

### (3)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고는 확실하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선고되는 것이지 자기의 권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3: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분이시니라.**

로마서 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을 뿐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자기의 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봉사에 의하여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지.

예수님의 이런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주 앞에 하나님의 옳으심을 증거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는 것이

p.232 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속죄와 구원의 복음은 성소적 이해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한 말씀은 바로 성소적 이해에 의하여 의의 사실을 말씀한 것이다.

요한복음 16:7-12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민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 말씀이다. 나타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어렵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 사실 이 말씀은 성소 봉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죄는 성소 봉사를 통하여 짐승의 대속으로 제사장이 사죄를 선언하면 용서가 되는데, 그것은 곧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 만일

p.233 그들이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렸을지라도 그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이루지 아니하셨으면 짐승을 죽여서 드린 속죄제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들이 여전히 죄 아래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며 속죄제를 아무리 드린다고 하여도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열심히 시행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실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성소 뜰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은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말이다. 성령은 바로 이런 사실, 즉 죄인이 성소 뜰에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고백을 해야 할 것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죄라고 책망하시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죽였는데 그 다음은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자. 그러면 밖에 있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보이니? 그럴 리가 없지. 그러나 그 제사장이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의로 선언된다는 증거라고 아깁 말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고 계신 것을 확실히 하신 것이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하는 뿌린 피**”로 완전한 속죄의 봉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모든 믿는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다.

p.234 그리고 영원한 의가 되시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의요 또한 믿는 우리의 의이다.

로마서 3:23-26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 지은 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이루실 때까지 참으시며 그 죄를 간과(看過)하셨다. 이 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

다. 그 시대에 그들이 비록 어떤 형태로든지 속죄제를 드렸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죄를 속할 수 없지 않니(히 10:1,11).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드린 속죄제의 실제적 속죄를 이루실 것을 전제로 그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드린 속죄제의 실제적 속죄를 이루실 것을 전제로 그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 대속의 봉사를 하심으로, 이렇게 간과된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히브리서 11:39-12:2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p.235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희생과 봉사가 없었다면 우리의 선인들이 믿음으로 행한, 짐승을 죽여서 드린 모든 속죄의 봉사가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나, 우리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서 대속의 일을 수행하심으로 그들이나 우리가 모두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주에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의 생축으로 보내셨으니 누가 원망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사단은 구약 시대에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될 것이냐고 빈정거리며 의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요 1:1,18)을 사람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또한 이 일

p.236 로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당위성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 (4) 우주의 화목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다목적적인 성취이다. 이를 인하여 온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골로새서 1:19,20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늘에 어떤 다른 범죄한 존재

들이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아마 천사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범죄한 천사들을 위한 화목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고 아버지가 벌써 이야기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천사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 그러면 누구인가? 우주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구 외에는 사람과 같은 지성적 존재가 사는 천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그런 계시가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계시가 있단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성경의 계시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성경에는 지구 외에 다른 세계에는 사람과 같은 지성적 존재가 있다고 계시하지 않았다고, “무지

p.237 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가리우는”(욥 38:2; 42:3)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욥기 1:6에는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니. 물론 욥기 2:1에도 있다. 또한 욥기 38:7에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 했을 때 기뻐 노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이들이 누구인가? 천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히 1:5,6)라고 하셨거든. 하나님이 천사 중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존재들이 천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누구인가?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구 이외에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지성적이며 인격적인 존재가 사는 다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본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또 히브리 12:23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장자들은 또 누구냐?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과 이해하려고 하지.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히 12:22,23)이라고 하여 “장자들의 총회”와 “천사”와 “교회”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따로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세계의 첫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아니겠니. 왜냐하면 장자라고 하였거든. 각 세계의 대표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냐?

p.238 생각해 보라. 이 끝 없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겨우 지구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창조하셨겠느냐. 이 지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사 40:15,17)은 것이다. 천문학에서는 우리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마치 밀짚 모자 두 개를 마주 얹어 놓은 모양이라고 하여, 그 크기를 지름이 10만 광년, 한 가운데 두께를 1만 5천 광년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 크기를 상상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 태양이 1천 억개가 있다고 한다. 은하계만 하여도 이렇게 큰데, 지극히 작은 이 지구에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죄인된 지구인의 좁은 생각이며 고립되어 있는 지구인들의 죄악적 웅졸함이나 말이다. 이 지구가 죄에 빠짐으로 다른 우주 세계와 교체가 차단 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체가 차단된 것은(사 59:1,2) 또한 범죄하지 않은 세계와의 교제도 차단 되게 한 것이 되었지. 그래서 지구에 사는 죄인된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 대하여 아는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연구할 때 계시의 빛에 의하여 다른 세계를 알게 될 뿐이다. 지구인들이 상상으로 우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그들이 지구를 공격하는 것을 상상하며, 영화를 만들어도 우주 전쟁 영화나 만드는 것은 죄인 된 지구인들의 사상의 근본이 전쟁적이고 파괴적이고 죄악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우주인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지구인들의 죄악적 교만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아버지가 지나치게 말한다고? 그냥 재미있게 하려다가 보니 그렇게 만들어 본 것일거라고?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에서 재미를 찾는 그 심리가 죄의 성질

p.239 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그것을 상상하여 만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타락한 지구의 사람들의 생각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고귀한 존재에 대한 고상한 사상을 가지면 안되니? 어느 세계의 피조물이든지 인격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것이다. 이 지구에 창조된 사람을 보면 알지 않나. 자 각설하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자. 우리가 은하계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지. 그래 은하계가 크다고 했지.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개가 있다고 하니 우리는 입을 벌리고 다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런 호호탕탕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지구와 같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아마 아담이라고 이름을 주셨을 것이다. 그 아담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장자들의 총회이다. 그런데 이 지구는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이 총회에 참석할 대표가 바뀐 것이다. 아담이 지구의 장자권을 사단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사단이 이 지구의 장자 행세를 하면서 장자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것이 욥기 1:6과 2:1의 광경이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땅 곧 지구에서 왔다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지구의 정당한 장자의 자격으로 왔다는 말인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자신이 지구의 정당한 주인이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을 네게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 왜냐하면 “이것

p.240 은 내게 **넘겨준 것이**”(눅 4:6)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누가 넘겨주었느냐? **아담이 넘겨준 것이다.** 그는 이런 자격으로 우주의 장자 총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계 12:10)하였다. 그러므로 우주 세계에는 사단의 존재가 절끄러운 존재요, 어찌면 사단의 선전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일말의 의구심도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사단이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사람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고 그의 모든 거짓 선전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 거민이 명백히 보았고, 그래서 온 우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엡 1:10)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참소가 있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구심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봉사는 우주를 통일되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한 것이다.

이것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는 말

씀의 뜻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야말로 지구에 사는 속죄받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성령께서 하실 일 중에 아버지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러고 보니

p.241 세 번째 사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는 말씀은 자연적으로 해석이 되었지? 사실 성소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에서 하는 봉사는 심판의 봉사가 아니냐. 아마 성소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지. 너희들은 조금은 알고 있지 않느냐. 봐라 내가 지금까지 성소 뜰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과 양을 잡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였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성소 뜰에서 양을 잡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1,12). 이것은 다 죄를 처리하기 위한 봉사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휘장 앞에 뿌리는 것은 죄를 사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하는 봉사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뿌린 피로 봉사하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최후에 정죄되어 멀리 광야 무인 지경으로 내어 쫓기는 것은 사단이다. 이스라엘이 성소 봉사의 마지막 단계인 지성소 봉사를 마칠 때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두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봉사를 통한 심판으로 사단이 최종적으로 정죄되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었지. 아사셀이란 유대인의 탈뭇에 의하면 광야에 있는 악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아사셀이라는 말은 “내어 보낸자, 완전히 제거된 자”라는 뜻이란다. 그 의미는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의 판결을 받아 집행된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p.242 사단이 영원히 멸절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다.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대적(對敵)하는 자”라는 뜻인데,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대적 자”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된 것이라고 전에 말했지.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 우리말 구약 성경에는 한번만 나온다(신 32:17). 그러나 원문은 두 번 (시 106:37 사신<邪神>이라고 번역됨, 혹은 세 번-암 2:1 회<灰>라고 번역) 쓰인 것 같구나. 이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가르키는 말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마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사단”과 같은 존재인 것이 계시록 12:9에 계시되었잖니. 신약에서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쫓겨난 자”라는 뜻이라는 것도 이미 이야기 하였잖니. 이것은 “아사셀”과 같은 뜻이 아니냐.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 곧 사단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단은 자기가 완전히 멸절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 12:12) 지금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계 12:12)고 하나님은 경고하여 주셨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마 24:24) 온갖 노력을 기울인단다. 그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진리의 정로에서 끌어 내려 하고 (마 24:24; 살후

2:9,10; 계 13:13,14) 진리를 혼잡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마치 자기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같이 확신하게 하면서 진리의 정로에서 떠나게 미혹하고 있다.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려면 사단이 예수처럼 가장해야 하고 자기의 일꾼들을 사단 자신을 예수님인줄 알도록 속

p.243 여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성경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활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고후 11:13-15)고 경고하였단다.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른 예수”를 따라가기 쉽다고 말하지 않았니. 이런 위험성을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진리의 백성들이 속지 않게 하려고 미리 다 경고해 주신 것이다.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느니라”(마 24:25)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 11:4). 얼마나 자상한 경고냐.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너무 잘 용납하고 너무 속히 진리를 떠나가니 이상하고도 답답하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3,4)는 때가 된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제 말한대로 사단의 속이는 활동이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니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겠니?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이란다.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역을 시도하였거든. 그러다가 쫓겨났는데 땅에 와서도 꼭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반역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격하(格下)운동을 벌이고 있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초의

p.244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되 성경 말씀을 짝짝이 찾아가며 교묘히 이론을 전개하여 마치 참된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자존자(自存者)요, 시작이 없으신 분이며(요 8:58; 히 7:3),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사 44:24; 요 1:1-3)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도 다 해야 예수님 이야기를 더 확실히 하는 것인데 “구속의 과학” 속에 좀더 자세히 써 놓았으니 너희들 다시 읽어 보아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못하다고 하여, 구속의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을 격하시킨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롬 8:39)고 분명히 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 4:9)고 하여 예수님이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지. 같은 내용의 말씀은 로마서 5:8에도 있단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니.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이다.** 알겠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 평가한다는

p.245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니냐. 이러한 이론들을 듣고 현혹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속의 도리의 전체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아담의 타락한 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예수님의 육체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과 같은 육체여서, 육체 곧 살(살크스)에 죄의 성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야기 하였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재료로서 살이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의 몸을 이루는 살과 같다는 의미로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지. 또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에 아담의 후손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과 같은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런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번에는 아담의 후손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성경의 명백한 계시를 부인하는 주장을 펴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아담의 타락한 인성과 꼭 같다고 주장을 하고보니 만일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면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성경은 결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고(히 7:26, 4:15, 요일 3:5등) 계시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락한 아담과 같은 인성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도 태어나면서 죄가 없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도 태어나면서는 죄가 없고 자기 의지를 죄에 동의할 때만 죄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금방 태어난 아기는 전혀 죄인이 아니지.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는 다 의인으로서 구원을 얻어야하고

p.246 예수님의 속죄의 대속은 필요없는 존재들이 아니겠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계시하지 않는다.

시편 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죄인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죄를 도덕적 측면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그런 서로 아귀가 맞지않는 논리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도덕 이전의 근본적인 죄는 존재와 생명 자체 문제라고 내내 이야기하였지.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가르친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상태로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성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과 다르다. 즉 생명 자체가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영생의 생명 자체이고 존재도 아담의 비존재와 상관없는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누이 설명하였지.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아담의 후손의 출생과 전혀 다르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음 성경말씀을 시편 51:5과 비교하면서 읽어봐라.

누가복음 1: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담의 후손은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지만, 예수님은 나실바 거룩한 자

이시고 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셨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면서 거룩하였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천사는 “이러므

p.247 로”라는 말을 하였다. 이 단어는 원어로 “디오( )”인데 “이런 까닭으로”라는 말이다. 즉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는 까닭으로 그는 탄생하면서부터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타락한 아담의 후손과 꼭 같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미 이야기한 일을 되풀이하여 시간만 없애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타락한 우리와 꼭 같은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끌어 올려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요 15:4)라고 말씀하셨다. 곧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본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다. 알겠니? 이런 이치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격하시키는 일은 다 속임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니. 우리는 조금만 부주의 하거나, 자기의 체험과 감정적 은혜를 사모하면 다른 예수를 믿게 될 위험한 세상에 있는 것이다. 사단은 크게 분내어 내려와서 이런식으로 사람을 속인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성경을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논리를 만들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 사람들이 속을 소지가 많지만, 구속의 복음을 자세히 살피면 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히 살려니와 범 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

p.248 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 18:19,20)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담의 죄를 어찌 그 후손이 담당하겠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아들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죽어 비존재 비생명이 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시키면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받아 쫓겨난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다.

너무 긴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하였구나. 그러면 다시 연결 되는 이야기, 곧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 중에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하던중에 심판과 관련하여 긴 이야기를 하였지.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것을 잘 알기 위하여는 레위기 16장을 자세히 연구하면 잘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성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아무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씀이 성소 봉사적 이해에 근거하여 하신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 않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요, 우리의 의이며, 온 우주의 의이시다. 그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 우주를 향하여 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주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가 없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승리인 것이다. 정말

p.249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온 우주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비존재 비생명들, 우리 주님의 속죄의 희생과 봉사를 믿지 않고 거절한 모든 것들을 그들의 결정대로 무(無)로 처리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죄에 시달려 낡은 이 지구를 수리하셔서 신천신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시는 일만 남았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는지 분명히 모르지만 모든 징조는 그 때가 심히 가까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중생한 사람으로 인격 천국을 이루어 생활하다가 그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뵈어야 하겠다.

#### p.250 끝맺는 말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끝내야 하겠구나. 사실은 아직도 할 얘기가 많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도 긴 이야기가 있지 않나.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또 다른 분들이 쓴 글들을 통하여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특성 중에 몇몇 이야기들을 들려준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학적 그리스도론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에 의하여서 이야기 하였다. 다른 책을 직접 참고하지도 않았다. 너희들과 앉아서 며칠을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본대로 오직 성경을 찾았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의 이런 설명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좀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겠지. 이제 이것을 책으로 엮었을 때 읽고 우리 예수님을 좀더 잘 알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너희 아버지는 기쁘겠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위를 취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p.251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 인격 천국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 오직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신 것처럼 날마다 승리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누나랑 너랑 다 같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게 느껴지느냐?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주 예수님과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잘 알고 기쁘게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 원어가 있는 페이지

p.13

p.100

p.120

p.124

p.132

p.150

p.151

p.161

p.172

p.247